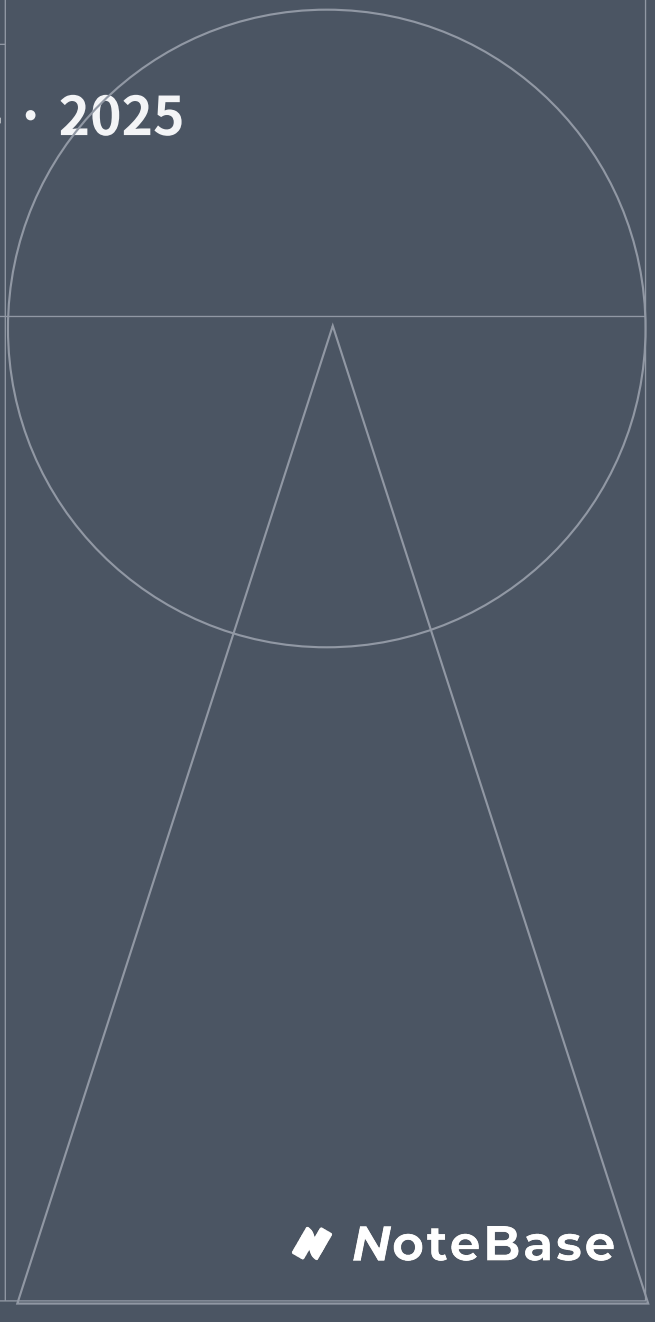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5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5

문 81. 빵의 수요곡선은 $Q_d = 200 - P$, 공급곡선은 $Q_s = P - 2$이다. 정부가 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다.)

① 100, 1

② 100, 2

③ 200, 1

④ 200, 2

⑤ 200, 3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 보조금이 공급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 사이에 쐐기를 만들 때,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정부 지급액·사중손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Q_d = 200 - P$, 공급곡선은 $Q_s = P - 2$이다.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을 P_s,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P_c라고 하면 $P_s = P_c + 2$이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단위당 보조금과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의 곱이고, 사중손실은 보조금으로 늘어난 거래량 구간에서 생기는 삼각형의 면적이다.

사용할 공식

보조금 지급 전에는 $Q_d = Q_s$를 이용한다.
보조금 지급 후에는 $200 - P_c = P_s - 2$와 $P_s = P_c + 2$를 함께 이용한다.
정부 지급액은 sQ_1, 사중손실은 $\frac{1}{2}s(Q_1 - Q_0)$이다. 여기서 s는 단위당 보조금, Q_0는 보조금 전 거래량, Q_1은 보조금 후 거래량이다. 보조금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사이에 단위당 s만큼의 쐐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보조금 전 균형은 $200 - P = P - 2$이므로 $P = 101$, $Q_0 = 99$이다.
2. 보조금 후에는 $P_s = P_c + 2$이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면 $200 - P_c = P_s - 2 = P_c$이다. 따라서 $P_c = 100$, $P_s = 102$, $Q_1 = 100$이다.
3.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2 \times 100 = 200$이다.
4. 사중손실은 $\frac{1}{2} \times 2 \times (100 - 99) = 1$이다.

선지 판단

① X — 사중손실 1은 맞지만, 정부 지급액을 거래량 100으로만 잡은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단위당 보조금 2를 곱하여 정부 지급액은 200이다.
② X — 정부 지급액 100과 사중손실 2가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정부 지급액은 $2 \times 100 = 200$, 사중손실은 $\frac{1}{2} \times 2 \times 1 = 1$이다.
③ O — 보조금 후 거래량이 100이므로 정부 지급액은 200이고, 거래량 증가분이 1이므로 사중손실은 1이다.
④ X — 정부 지급액 200은 맞지만, 사중손실 2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삼각형 면적이므로 2×1에 $\frac{1}{2}$을 곱해 사중손실은 1이다.
⑤ X — 정부 지급액 200은 맞지만, 사중손실 3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단위당 보조금 2와 거래량 증가분 1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면적인 1이다.

오답 포인트

정부 지급액과 사중손실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정부 지급액은 보조금 지급 후 전체 거래량 100에 단위당 보조금 2를 곱한 직사각형의 면적이고, 사중손실은 거래량 증가분 $100 - 99 = 1$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면적이다. 특히 ④의 2는 사중손실 계산에서 $\frac{1}{2}$을 빠뜨릴 때 나오는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조금 전 거래량을 구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격과 공급자가격의 차이가 단위당 보조금과 같다는 조건을 적용해 보조금 후 거래량을 구한다. 정부 지급액은 전체 거래량을, 사중손실은 거래량 증가분만을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보조금 지급액은 sQ_1, 사중손실은 $\frac{1}{2}s(Q_1 - Q_0)$이다.

NoteBase

문 82.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수준에 생긴 변화에 대해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면 그 상품은 열등재이다.
ㄷ. 정상재 중 수요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크면 필수재이다.
ㄹ.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ㅁ.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의 정의, 그리고 탄력성의 부호와 크기에 따른 재화의 분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E_Y = \frac{\%\Delta Q_d}{\%\Delta Y}$이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감소하면 열등재이다. 정상재 중 $E_Y > 1$이면 사치재이고, $0 < E_Y < 1$이면 필수재이다.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이다.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교차탄력성이 양수이고, 보완재는 음수이다.
따라서 ㄱ, ㄴ, ㄹ은 옳고 ㄷ, ㅁ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ㄷ의 '필수재'가 잘못된 표현이며, 수요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큰 정상재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사치재이다. 옳은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② O — ㄱ은 소득탄력성의 정의, ㄴ은 열등재의 판별 기준, ㄹ은 교차탄력성의 정의에 각각 부합한다.
③ X — ㅁ의 '0보다 작다'가 잘못된 표현이고, 옳게 고치면 대체재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크다. 또한 옳은 ㄴ이 빠져 있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④ X — ㄷ의 '필수재'가 잘못된 표현이고, 옳게 고치면 소득에 비해 수요가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정상재는 사치재이다. 또한 옳은 ㄱ이 빠져 있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⑤ X — ㄷ과 ㅁ이 모두 틀렸다. ㄷ의 '필수재'는 '사치재'로, ㅁ의 '0보다 작다'는 '0보다 크다'로 고쳐야 한다. 또한 옳은 ㄱ과 ㄴ이 빠져 있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ㄷ에서는 정상재라는 사실만 보고 필수재로 판단하기 쉽지만, 정상재 안에서도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사치재이고 1보다 작으면 필수재이다. ㅁ에서는 대체재와 보완재의 교차탄력성 부호를 반대로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 증가와 수요 변화의 방향으로 정상재와 열등재를 먼저 구분하고, 정상재는 수요 변화율과 소득 변화율의 크기를 비교해 사치재와 필수재를 구분한다. 교차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늘면 대체재이므로 양수, 줄면 보완재이므로 음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탄력성은 정상재 양수·열등재 음수, 정상재 중 1 초과는 사치재·1 미만은 필수재이다. 교차탄력성은 대체재 양수·보완재 음수이다.

NoteBase

문 83.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9L^{1/3}K^{2/3}$이고, 노동투입량(L)과 자본투입량(K)은 각각 8과 27일 때, 자본의 한계생산(MP_K)과 평균생산(AP_K)은?

① 1, 3

② 2, 4

③ 3, 6

④ 4, 2

⑤ 4, 6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생산함수를 자본투입량으로 편미분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을 구하고, 총생산을 자본투입량으로 나누어 자본의 평균생산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Q = 9L^{1/3}K^{2/3}$이다.
주어진 투입량은 $L = 8, K = 27$이다.
구해야 할 값은 자본의 한계생산 MP_K과 자본의 평균생산 AP_K이다.

사용할 공식

$MP_K = \frac{\partial Q}{\partial K}$
$AP_K = \frac{Q}{K}$
한계생산은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총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므로 생산함수를 K로 편미분한다.
평균생산은 자본 한 단위당 총생산이므로 총생산을 K로 나눈다.

계산 과정

1. 자본의 한계생산을 계산한다.
$MP_K = 9 \cdot \frac{2}{3}L^{1/3}K^{-1/3} = 6L^{1/3}K^{-1/3}$
$8^{1/3} = 2, 27^{-1/3} = \frac{1}{3}$이므로
$MP_K = 6 \cdot 2 \cdot \frac{1}{3} = 4$
2. 총생산을 계산한다.
$Q = 9 \cdot 8^{1/3} \cdot 27^{2/3} = 9 \cdot 2 \cdot 9 = 162$
3. 자본의 평균생산을 계산한다.
$AP_K = \frac{Q}{K} = \frac{162}{27} = 6$
따라서 $(MP_K, AP_K) = (4, 6)$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제시된 $(1, 3)$은 계산 결과와 모두 다르다. 올바르게는 $(MP_K, AP_K) = (4, 6)$이다.
② X — 제시된 $(2, 4)$은 계산 결과와 모두 다르다. 올바르게는 $(MP_K, AP_K) = (4, 6)$이다.
③ X — 평균생산 6은 맞지만 한계생산을 3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MP_K = 4$이므로 $(4, 6)$이다.
④ X — 한계생산 4는 맞지만 평균생산을 2로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AP_K = 6$이므로 $(4, 6)$이다.
⑤ O — $MP_K = 4$, $AP_K = 6$으로 두 값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자본의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을 혼동하기 쉽다. MP_K는 생산함수를 K로 편미분하며, AP_K는 총생산을 K로 나눈다. 또한 $K^{2/3}$을 미분하면 지수가 내려와 $\frac{2}{3}K^{-1/3}$이 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은 해당 요소로 편미분하고, 평균생산은 총생산을 해당 요소의 투입량으로 나눈다. 그다음 주어진 투입량을 대입하여 선지의 값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자본 기준으로 한계는 K로 미분하고, 평균은 Q/K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84. 규모의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

②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각 제품을 따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낮아진다.

③ 투입요소를 증가시킬 때 장기한계비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

④ 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

⑤ 산출량이 증가할 때 장기평균비용은 감소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규모의 경제를 장기평균비용의 움직임으로 판별하고, 규모에 대한 수익 및 범위의 경제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모의 경제: 산출량이 증가할 때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 모든 투입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어떤 비율로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같은 비율이면 불변, 더 큰 비율이면 체증이다.
범위의 경제: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비용이 각각 따로 생산하는 비용의 합보다 작은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모든 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늘릴 때 산출량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정의이다. 틀린 표현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이며,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라면 산출량이 투입요소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한다고 고쳐야 한다. 규모의 경제 자체는 장기평균비용의 감소로 판단한다.
② X —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각각 따로 생산할 때보다 낮아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이다. 틀린 개념은 '규모의 경제'이며, 올바르게는 '범위의 경제'에 대한 설명이다.
③ X — 장기한계비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면 한계비용이 평균을 끌어올리므로 장기평균비용이 상승한다. 이는 규모의 불경제 구간이다. 틀린 표현은 '장기한계비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이며, 규모의 경제 구간에서는 장기한계비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작다고 고쳐야 한다.
④ X — 투입요소를 늘렸는데 산출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이며,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을 말하려면 산출량이 투입요소의 증가율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한다고 고쳐야 한다.
⑤ O — 산출량이 증가할 때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의 정의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을 비교하는 규모에 대한 수익의 표현이고, ②는 여러 제품의 공동생산 여부를 따지는 범위의 경제이다. '규모'라는 말만 보고 고르지 않고,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산출량과 장기평균비용의 관계가 제시되면 규모의 경제를 판단한다. 산출량 증가 시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면 규모의 경제, 일정하면 규모의 경제도 불경제도 없는 상태, 증가하면 규모의 불경제이다. 모든 투입요소와 산출량의 증가율 비교는 규모에 대한 수익, 여러 제품의 공동생산 비용 비교는 범위의 경제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 증가와 장기평균비용 감소, 범위의 경제는 함께 생산할 때의 비용 절감이다.

NoteBase

문 85. 소비자의 최적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슬러츠키(Slutsky) 분해는 가격변화의 효과를 대체효과와 가격효과로 나눈다.

② 가격효과는 항상 대체효과보다 크다.

③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이다.

④ 소득효과는 재화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전반적 구매력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재화소비량의 변화이다.

⑤ 보상수요곡선은 가격변화로 인한 대체효과를 제거한 후 구해진 수요곡선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가격변화의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구분하고, 무차별곡선의 형태와 보상수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효과: 재화 가격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하는 전체 효과이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이다.
대체효과: 상대가격의 변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리고 비싸진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 효과이다.
소득효과: 가격변화가 실질구매력을 바꾸어 재화의 소비량을 변화시키는 효과이다.
보상수요: 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소득을 보상한 상태의 수요이므로 소득효과를 제거하고 대체효과를 나타낸다.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완전보완재의 무차별곡선은 L자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슬러츠키 분해는 가격변화에 따른 전체 가격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눈다.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와 가격효과'이며, 올바르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이다.

② X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이지만 소득효과의 방향과 크기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가격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항상 크다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가격효과의 크기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 및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이다.

③ X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의 무차별곡선은 일정한 비율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완전대체재를 나타낸다. 틀린 표현은 '완전보완재'이며, 올바르게는 '완전대체재'이다. 완전보완재의 무차별곡선은 L자형이다.

④ O
소득효과는 재화 가격의 변화가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해당 재화의 소비량이 변하는 것을 뜻한다.

⑤ X
보상수요곡선은 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소득을 보상하여 소득효과를 제거한 수요곡선이므로 가격변화의 대체효과를 나타낸다. 틀린 표현은 '대체효과를 제거'이며, 올바르게는 '소득효과를 제거'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가격효과를 분해의 결과 중 하나처럼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가격효과는 분해 대상이고 그 구성요소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이다. ⑤는 보상수요에서 제거되는 효과를 대체효과로 뒤바꾼 표현이며, 보상으로 구매력 변화를 상쇄하므로 제거되는 것은 소득효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변화 문제에서는 먼저 '가격효과 = 대체효과 + 소득효과'를 적용한다. 보상수요는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소득효과를 제거한 수요이고,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면 완전대체재, L자형이면 완전보완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 보상수요는 소득효과 제거, 직선은 완전대체재, L자는 완전보완재이다.

NoteBase

문 86.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경우, 기업의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평균총비용은 U자 형태이고, 생산이 증가할 때를 가정한다.)

① 한계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② 평균총비용이 감소한다.

③ 평균고정비용은 증가한다.

④ 평균가변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⑤ 평균고정비용은 불변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을 때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총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비용(MC)은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이고, 평균총비용(ATC)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으면 새로 추가되는 비용이 기존 평균보다 낮으므로 평균총비용은 하락한다.
즉, $MC < ATC$이면 ATC는 감소하고, $MC > ATC$이면 ATC는 증가한다.
평균고정비용(AFC)은 고정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계속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은 항상 감소한다'이다. $MC < ATC$는 평균총비용의 감소를 뜻할 뿐, 한계비용 자체가 감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계비용은 상승 중이면서도 평균총비용보다 낮을 수 있다.
② O —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으면 낮은 한계비용이 기존 평균을 끌어내리므로 평균총비용이 감소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평균고정비용은 증가한다'이다. 고정비용이 일정할 때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평균가변비용은 항상 감소한다'이다. 평균가변비용의 증감은 한계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을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다. $MC < AVC$이면 AVC가 감소하고, $MC > AVC$이면 AVC가 증가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평균고정비용은 불변이다'이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일정한 고정비용이 더 많은 생산량에 나뉘므로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다'는 조건을 한계비용 자체의 감소로 오해하기 쉽다. 이 조건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평균총비용의 변화 방향이다. 또한 평균가변비용은 한계비용과 평균총비용의 비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계값과 평균값을 비교한다.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작으면 평균값은 내려가고,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크면 평균값은 올라간다. ATC의 방향은 MC와 ATC를, AVC의 방향은 MC와 AVC를 비교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한계가 평균보다 낮으면 평균은 하락한다. $MC < ATC$이면 ATC 감소, 생산량 증가이면 AFC 감소이다.

NoteBase

문 87. 두 재화 X재, Y재를 통한 효용함수가 $U = X + 2Y$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소득을 X재와 Y재의 소비에 지출하고 P_X, P_Y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이다.)

ㄱ.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ㄴ. MRS_{XY}(한계대체율)는 일정하다.
ㄷ. 두 재화의 대체효과는 0이다.
ㄹ.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 관계이다.
ㅁ. $MRS_{XY} < P_X/P_Y$일 때 X재만 소비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선형 효용함수에서 무차별곡선의 모양, 한계대체율, 완전대체재의 최적 소비 조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U = X + 2Y$에서는 $MU_X = 1$, $MU_Y = 2$이므로 $MRS_{XY} = MU_X/MU_Y = 1/2$로 일정하다. 무차별곡선은 $Y = U/2 - X/2$이므로 기울기가 $-1/2$인 우하향 직선이며,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이다.
소비자는 한계효용 대비 가격을 비교한다. $MRS_{XY} > P_X/P_Y$이면 X재만, $MRS_{XY} < P_X/P_Y$이면 Y재만 소비한다. 두 값이 같으면 예산선 위의 모든 소비 조합이 최적이다.
따라서 ㄱ, ㄴ, ㄹ은 옳고, ㄷ과 ㅁ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 ㄴ, ㄹ은 모두 옳다. 무차별곡선은 우하향 직선이고, 한계대체율은 1/2로 일정하며,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이다.

② X — 틀린 진술은 ㅁ의 'X재만 소비한다'이다. $MRS_{XY} < P_X/P_Y$이면 X재의 상대적 효용이 상대가격보다 낮으므로 실제로는 Y재만 소비한다. 따라서 ㅁ 대신 ㄹ이 들어가야 한다.

③ X — 틀린 진술은 ㄷ의 '대체효과는 0이다'이다. 상대가격이 변하여 P_X/P_Y가 일정한 MRS_{XY}를 지나면 최적 소비가 한 재화에서 다른 재화로 바뀔 수 있으므로 대체효과가 일반적으로 0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ㄷ 대신 ㄴ이 들어가야 한다.

④ X — 틀린 진술은 ㅁ의 'X재만 소비한다'이다. 해당 부등식에서는 Y재만 소비하며, 옳은 조합을 만들려면 ㅁ 대신 ㄱ이 들어가야 한다.

⑤ X — ㄷ과 ㅁ이 모두 틀렸다. 대체효과가 항상 0인 것은 아니고, $MRS_{XY} < P_X/P_Y$일 때는 Y재만 소비한다. 옳은 조합은 ㄱ, ㄴ, ㄹ이다.

오답 포인트

ㅁ에서 부등호의 방향과 선택 재화를 반대로 연결하기 쉽다. MRS_{XY}는 소비자가 평가하는 X재의 상대가치이고 P_X/P_Y는 시장에서의 X재 상대가격이므로, 상대가치가 상대가격보다 작으면 X재가 아니라 Y재를 선택한다. 또한 완전대체재라고 해서 대체효과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효용함수 $U = aX + bY$에서는 $MRS_{XY} = a/b$를 구한 뒤 P_X/P_Y와 비교한다. $a/b > P_X/P_Y$이면 X재만, $a/b < P_X/P_Y$이면 Y재만, 두 값이 같으면 예산선 위의 모든 조합이 최적이다.

암기 포인트

선형 효용함수는 완전대체재, 일정한 한계대체율, 직선형 무차별곡선이다. 한계대체율이 상대가격보다 작으면 Y재만 소비한다.

NoteBase

문 88.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재화의 일정량 구입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다.

② 생산자잉여란 생산자가 재화의 일정량 판매로 인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판매할 용의가 있었던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③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란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증감해야 하는 소득의 크기를 의미한다.

④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란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에서 가격변화 이후의 효용수준으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소득의 변화이다.

⑤ 효용함수란 일정한 공리를 만족하는 소비자의 선호 서열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정의, 보상변화와 동등변화의 기준이 되는 가격·효용수준, 효용함수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자잉여: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금액이다. 키워드는 '지불용의액－실제 지불액'이다.
생산자잉여: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판매에 필요한 최소 수취용의액을 뺀 금액이다. 키워드는 '실제 수입－최소 수취용의액'이다.
보상변화: 가격변화 후의 가격에서 가격변화 전 효용수준을 회복하도록 조정해야 하는 소득이다.
동등변화: 가격변화 전의 가격에서 가격변화 후 효용수준에 도달하도록 조정해야 하는 소득이다.
효용함수: 일정한 공리를 만족하는 소비자의 선호 서열을 수치로 표현한 함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을 실제로 지불하므로 두 가격의 차이는 소비자잉여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비자잉여이다.
② O —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판매할 용의가 있었던 최소 금액을 차감한 것이 생산자잉여이다.
③ O — 보상변화는 가격이 변한 뒤 소비자를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소득의 증감액이다. 이때 가격변화 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④ O — 동등변화는 가격변화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가격변화 이후의 효용수준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소득의 변화이다.
⑤ O — 효용함수는 완비성·이행성 등 일정한 공리를 만족하는 선호를 수치로 나타내며, 효용의 절대적 크기보다 선호 서열을 표현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실제 지불액'과 '지불용의액'을 바꾸어 놓았다. 또한 보상변화와 동등변화는 모두 소득으로 후생변화를 재지만, 보상변화는 가격변화 전 효용을, 동등변화는 가격변화 후 효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잉여는 거래에서 얻은 순편익이므로 소비자는 지불용의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빼고, 생산자는 실제 수입에서 최소 수취용의액을 뺀다. 후생측정에서는 보상변화는 '변화 전 효용 회복', 동등변화는 '변화 후 효용 달성'이라는 목표 효용수준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소비자잉여는 지불용의액−실제 지불액, 생산자잉여는 실제 수입−최소 수취용의액이다. 보상변화는 옛 효용, 동등변화는 새 효용을 기준으로 한다.

NoteBase

문 89. 복점시장에서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의 역수요함수는 $P = 20 - q_1 - q_2$이다. 두 기업의 비용구조는 동일하며 고정비용은 없고 한 단위당 생산비용은 8일 때, 균형가격과 기업2의 균형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_1은 기업1의 생산량, q_2는 기업2의 생산량이다.)

① 10, 2

② 12, 2

③ 12, 4

④ 14, 8

⑤ 14, 1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복점 꾸르노 경쟁에서 각 기업의 반응함수를 구하고, 두 반응함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균형생산량과 균형가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역수요함수는 $P = 20 - q_1 - q_2$이고,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모두 8이다. 고정비용은 없으며 두 기업의 비용구조가 같으므로 대칭적 꾸르노 균형이 성립한다. 구해야 할 값은 균형가격 P와 기업2의 균형생산량 q_2이다.

사용할 공식

기업1의 이윤은 $\pi_1 = (P - 8)q_1 = (12 - q_1 - q_2)q_1$이다. 이를 q_1에 관해 극대화하면 반응함수 $q_1 = (12 - q_2)/2$를 얻는다. 같은 방식으로 기업2의 반응함수는 $q_2 = (12 - q_1)/2$이다. 꾸르노 경쟁에서는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므로 이 반응함수들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두 기업의 비용구조가 같으므로 대칭균형에서 $q_1 = q_2 = q$이다.

$q = \frac{12 - q}{2}$

따라서 $2q = 12 - q$, $3q = 12$이므로 $q = 4$이다. 즉, 기업2의 균형생산량은 $q_2 = 4$이다. 이를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 = 20 - 4 - 4 = 12$

이므로 균형가격은 1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제시된 '10, 2'는 균형가격과 기업2의 균형생산량이 모두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12, 4'이다.
② X — 제시된 균형가격 12는 맞지만 기업2의 생산량 2가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기업2의 균형생산량이 4이므로 '12, 4'이다.
③ O — 각 기업의 균형생산량이 4이고 이를 역수요함수에 대입한 균형가격이 12이므로 '12, 4'가 맞다.
④ X — 제시된 '14, 8'은 균형가격과 기업2의 균형생산량이 모두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12, 4'이다. 특히 $q_2 = 8$이면 대칭균형 생산량 4와 일치하지 않는다.
⑤ X — 제시된 '14, 10'은 균형가격과 기업2의 균형생산량이 모두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12, 4'이다. 특히 $q_2 = 10$은 기업2의 반응함수와 대칭균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꾸르노 경쟁에서는 시장 전체 생산량을 한 기업의 생산량처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업의 반응함수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또한 균형가격을 구할 때는 한 기업의 생산량 4만 빼는 것이 아니라 총생산량 $q_1 + q_2 = 8$을 역수요함수에 대입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꾸르노 복점 문제는 각 기업의 이윤함수 작성, 일계조건으로 반응함수 도출, 반응함수 연립, 총생산량을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비용구조가 같으면 대칭조건 $q_1 = q_2$를 이용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수요가 $P = a - Q$, 두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은 c인 대칭적 꾸르노 복점에서는 각 기업의 생산량이 $(a - c)/3$이다. 이 문항에서는 $(20 - 8)/3 = 4$이다.

NoteBase

문 90. 독점과 독점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점기업이 직면한 공급곡선은 시장공급곡선 그 자체이다.

②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작을수록 독점도는 커진다.

③ 독점경쟁시장에서 제품의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④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감소한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필요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독점기업의 공급곡선, 독점도, 가격차별과 독점경쟁시장의 제품차별화가 가격·수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시장은 하나의 기업이 시장수요곡선을 마주하고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선택한 뒤 수요곡선에서 가격을 정하는 시장이다.
독점경쟁시장은 다수 기업이 서로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므로 각 기업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마주하는 시장이다.
독점도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얼마나 높게 설정되는지로 파악하며, 이윤극대화점에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독점기업에는 가격만으로 공급량이 하나로 정해지는 공급곡선이 없다. 같은 가격이라도 수요곡선의 형태에 따라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틀린 표현은 '공급곡선은 시장공급곡선 그 자체'이며, 올바르게는 '독점기업의 공급량은 시장수요와 비용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독립적인 공급곡선을 도출할 수 없다'이다.

② X
이윤극대화점에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으므로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는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차이가 클수록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는 독점력이 크다. 틀린 표현은 '차이가 작을수록 독점도는 커진다'이며, 올바르게는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클수록 독점도는 커진다'이다.

③ X
제품차별화가 커지면 다른 기업의 상품과의 대체가능성이 낮아져 개별 기업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작아진다. 틀린 표현은 '가격탄력성이 커진다'이며, 올바르게는 '제품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작아진다'이다.

④ X
가격차별의 후생효과는 생산량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회후생이 항상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완전가격차별은 독점 생산량을 확대하여 사중손실을 없앨 수 있다. 틀린 표현은 '항상 감소한다'이며, 올바르게는 '가격차별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차별의 형태와 생산량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이다.

⑤ O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의 추가수입인 한계수입과 추가비용인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내부해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작을수록', ③의 '커진다', ④의 '항상'이 방향이나 범위를 뒤집는 표현이다. 특히 독점기업이 가격을 정한다는 사실을 가격별 공급량이 정해진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①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 문제에서는 먼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생산량을 찾고 수요곡선에서 가격을 확인한다. 가격과 한계비용의 격차가 클수록 독점력이 크며, 제품차별화가 강할수록 대체가능성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작아진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생산량과 사중손실의 변화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독점은 공급곡선이 없고, 이윤극대화는 한계수입=한계비용이다. 차별화가 강하면 수요는 덜 탄력적이며, 가격차별의 후생효과는 항상 같은 방향이 아니다.

NoteBase

문 91.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Q_d = 8 - 0.25P$이고 공급곡선은 $Q_s = 0.5P - 4$라고 할 때, 균형가격(P)과 생산자잉여는?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다.)

① 4, 8

② 8, 8

③ 8, 16

④ 16, 16

⑤ 16, 32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균형가격을 구한 뒤, 공급곡선 위이면서 균형가격 아래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생산자잉여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Q_d = 8 - 0.25P$, 공급곡선은 $Q_s = 0.5P - 4$이다.
균형에서는 $Q_d = Q_s$이다.
생산자잉여를 구하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뿐 아니라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도 확인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균형 조건은 $Q_d = Q_s$이다.
직선형 공급곡선에서 생산자잉여는 (1)/(2)×(균형가격-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균형거래량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도 공급할 의사가 있었던 생산자가 얻는 잉여는 공급곡선 위와 시장가격 아래의 면적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균형 조건을 적용하면 $8 - 0.25P = 0.5P - 4$이므로 $12 = 0.75P$, 따라서 $P = 16$이다.
2. $P = 16$을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에 대입하면 $Q = 8 - 0.25 \times 16 = 4$이므로 균형거래량은 4이다.
3. 공급량이 0이 되는 가격을 구하면 $0 = 0.5P - 4$이므로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은 $P = 8$이다.
4. 생산자잉여는 $\frac{1}{2} \times (16 - 8) \times 4 = 16$이다.

따라서 균형가격과 생산자잉여의 순서쌍은 (16, 16)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4, 8’은 균형가격과 생산자잉여가 모두 틀렸다. 균형거래량 4를 균형가격으로 혼동한 값이며, 올바른 순서쌍은 ‘16, 16’이다.
② X — ‘8, 8’은 균형가격과 생산자잉여가 모두 틀렸다. 8은 공급량이 0이 되는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이지 균형가격이 아니며, 올바른 순서쌍은 ‘16, 16’이다.
③ X — ‘8, 16’에서 생산자잉여 16은 맞지만 균형가격 8이 틀렸다. 균형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두어 구한 16이므로 올바른 순서쌍은 ‘16, 16’이다.
④ O — 균형가격은 16이고 생산자잉여도 16이므로 ‘16, 16’이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⑤ X — ‘16, 32’에서 균형가격 16은 맞지만 생산자잉여 32가 틀렸다. 32는 $(16-8)\times 4$로 직사각형 넓이를 계산한 값이며, 생산자잉여는 삼각형이므로 $\frac{1}{2}$을 곱한 16이다. 올바른 순서쌍은 ‘16, 16’이다.

오답 포인트

균형거래량 4를 균형가격으로 착각하거나,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 8을 균형가격으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생산자잉여 영역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므로 ⑤처럼 밑변과 높이만 곱하면 실제 값의 두 배인 32가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선형 수요·공급 문제는 먼저 $Q_d = Q_s$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하고, 다음으로 공급량이 0인 가격을 찾은 뒤, 마지막으로 공급곡선 위와 균형가격 아래의 삼각형 면적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생산자잉여는 ‘가격 차이 × 거래량 ÷ 2’이며, 가격 차이는 균형가격에서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을 뺀 값이다.

NoteBase

문 9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재화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② 조세부담은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③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④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생산자에게 더 귀착된다.

⑤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물품세 부담이 소비자와 생산자 중 누구에게 귀착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것은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수요량이 0으로 줄어드는 완전탄력적 수요를 뜻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세금 부과 전 수준보다 오를 수 없고, 생산자가 받는 세후 가격이 세액만큼 낮아져 조세부담이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조세의 법적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경제적 부담의 귀착을 결정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작은 쪽에 더 크게 귀착되며, 이 문항에서는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므로 공급 측이 전부 부담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이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순간 수요가 사라지므로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조세부담이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② O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지 못한다. 생산자가 받는 세후 가격이 세액만큼 하락하므로 조세부담은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③ X
틀린 표현은 '양측에 귀착되나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이다. 소비자는 가격 상승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부담이 양측에 나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소비자 부담은 0이고 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양측에 귀착되나 생산자에게 더 귀착된다'이다. 생산자 부담이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소비자 부담이 0이므로 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 올바르게는 조세부담이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⑤ X
틀린 표현은 '똑같이 귀착된다'이다. 동일 부담은 이 문항의 탄력성 조건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완전탄력적인 수요 측은 부담하지 않고 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

오답 포인트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말만 보고 양측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극단적 조건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조금도 올릴 수 없으므로 '더 많이'가 아니라 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에 더 크게 귀착된다고 판단한다. 한쪽이 완전탄력적이면 그쪽의 부담은 0이고 반대쪽이 전부 부담한다. 반대로 한쪽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그쪽이 전부 부담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탄력적인 쪽은 조세부담 0, 반대쪽은 조세부담 전부이다.

NoteBase

문 93.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크다.
ㄴ.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직접통제 방식은 외부효과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며 상황변화에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ㄹ.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부(-)의 생산 외부효과가 시장생산량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보조금, 직접통제, 자발적 협상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의 편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부(-)의 생산 외부효과에서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보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크므로 시장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아진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조세·보조금 등으로 의사결정자가 외부비용이나 외부편익을 고려하게 만드는 것이다.
직접통제는 배출량·기술 기준 등을 정하는 방식이어서 목표를 분명히 집행할 수 있지만, 상황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면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효과에 따른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옳은 ㄹ이 빠져 있다. 틀린 구성인 'ㄱ, ㄴ, ㄷ'은 'ㄱ,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② O
ㄱ은 부(-)의 생산 외부효과에서 시장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커진다는 설명이고, ㄴ은 조세·보조금에 의한 내부화, ㄹ은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의 자발적 협상을 설명하므로 모두 옳다.

③ X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옳은 ㄴ이 빠져 있다. 틀린 구성인 'ㄱ, ㄷ, ㄹ'은 'ㄱ,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④ X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틀린 구성인 'ㄴ, ㄷ, ㄹ'은 'ㄱ,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ㄱ, ㄴ, ㄷ, ㄹ'에서 ㄷ을 제외한 'ㄱ, ㄴ, ㄹ'이 올바른 구성이다.

오답 포인트

ㄷ의 '외부효과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앞부분만 보고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직접통제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므로 기업별 저감비용이나 기술·시장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황변화에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의 생산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므로 시장에서 과다 생산된다고 판단한다. 정책수단은 조세·보조금이면 내부화, 규제 기준이면 직접통제로 구분하고, 직접통제의 약점은 비신축성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거래비용이 없다는 조건이 제시되면 자발적 협상에 의한 비효율 개선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부(-)의 생산 외부효과는 과다 생산, 조세·보조금은 내부화, 직접통제는 비신축적, 거래비용 0은 자발적 협상이다.

NoteBase

문 94.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니계수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② 동일한 지니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③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④ 전체 구성원의 소득기준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0%를 벌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⑤ 십분위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 십분위분배율이 소득분배의 균등도를 어떤 방향으로 나타내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렌츠 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누적한 인구 비율과 그들이 차지하는 누적 소득 비율의 관계를 나타낸다.
완전균등선인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지니계수는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한 불평등 지표이다.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하고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하다.
십분위분배율은 소득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값이 클수록 저소득층의 상대적 몫이 커서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지니계수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이다. 지니계수는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하고,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교차할 수 없다"이다. 서로 다른 로렌츠 곡선이 어떤 구간에서는 완전균등선에 더 가깝고 다른 구간에서는 더 멀 수 있으므로, 두 곡선은 교차하면서도 완전균등선과 이루는 전체 면적이 같아 동일한 지니계수를 가질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대각선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소득을 얻는 완전균등 상태를 나타낸다.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나머지 사람들의 누적 소득은 0에 머물다가 마지막에 전체 소득으로 급증하는 완전불평등 형태가 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를 벌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대각선은 상위 10%도 전체 소득의 10%를 얻는 완전균등 상태이다. 상위 10%가 40%를 얻으면 소득이 상위층에 집중되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아래에 놓인다.
⑤ O —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하위 계층의 상대적 소득 몫이 크므로 소득분배가 더 균등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니계수와 십분위분배율의 방향을 반대로 기억하기 쉽다.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크기이므로 커질수록 불평등하지만,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계층의 몫을 상위 계층의 몫과 비교하므로 커질수록 균등하다. 또한 동일한 지니계수는 두 로렌츠 곡선의 전체 면적이 같다는 뜻일 뿐, 곡선의 모양이 같거나 교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표의 분자와 의미를 먼저 확인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지표이므로 큰 값이 불평등을 뜻하고,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몫이 분자이므로 큰 값이 균등을 뜻한다.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과 가까운 정도로 판단하며, 대각선에서는 누적인구 비율과 누적소득 비율이 모든 지점에서 같다.

암기 포인트

지니계수는 클수록 불평등,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균등,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균등이다.

NoteBase

문 95.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ㄴ.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ㄹ.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소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구별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시장의 공공재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로,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가진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따라서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개별 소비자에게 양의 시장가격을 부과하기 어려우며, 시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은 비배제성으로 인해 대가를 내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가 생기면 민간 공급자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공공재가 과소공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ㄴ도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개별 소비자에게 양의 시장가격을 매겨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옳다.

② X
ㄴ은 옳지만 ㄷ은 비경합성의 정의를 비배제성이라고 잘못 표현하였다. '배제불가능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줄이지 않는 성질은 '비경합성'이다.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ㄷ과 ㄹ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썼으므로 모두 옳지 않다. ㄷ의 내용은 비경합성, ㄹ의 내용은 비배제성의 설명으로 고쳐야 한다.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이 옳지 않다. ㄷ의 '배제불가능성'은 '비경합성'으로 고쳐야 하므로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은 두 개념의 명칭을 서로 뒤바꾸었으므로 옳지 않다. ㄷ은 비경합성, ㄹ은 비배제성의 설명으로 고쳐야 하며,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ㄷ과 ㄹ은 설명 자체가 낯선 것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명칭만 서로 바꾼 선지이다.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경합 여부의 문제이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막을 수 없다'는 배제 여부의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비자 수가 늘 때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어드는지를 물으면 경합성을 판단하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막을 수 있는지를 물으면 배제성을 판단한다. 그다음 비배제성에서 무임승차와 시장의 과소공급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비경합성은 함께 써도 줄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돈을 내지 않아도 막기 어려운 성질이다. 비배제성은 무임승차와 과소공급을 낳는다.

NoteBase

문 96. 동일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마트(mart) E와 H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마트가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E와 H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 값은 E의 보수, 오른쪽 값은 H의 보수를 나타낸다.)

		H	
		광고함	광고 안함
E	광고함	(10, 4)	(8, 3)
	광고 안함	(3, 8)	(6, 4)

①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② E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③ H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④ 내쉬균형은 E와 H 둘 다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⑤ E와 H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수행렬에서 상대방의 각 전략에 대한 최적반응을 찾고,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괄호의 왼쪽은 E의 보수, 오른쪽은 H의 보수임을 확인한다.
2. 상대방의 전략을 하나씩 고정한 뒤 자신의 두 전략에서 얻는 보수를 비교한다.
3. 두 상대 전략 모두에 더 유리한 전략이 있으면 우월전략으로 판단하고, 두 플레이어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칸에서 내쉬균형과 보수조합을 확인한다.

핵심 근거

H가 광고하면 E의 보수는 광고할 때 10, 광고하지 않을 때 3이므로 E는 광고를 선택한다. H가 광고하지 않아도 E의 보수는 8과 6이므로 E는 광고를 선택한다.
E가 광고하면 H의 보수는 광고할 때 4, 광고하지 않을 때 3이므로 H는 광고를 선택한다. E가 광고하지 않아도 H의 보수는 8과 4이므로 H는 광고를 선택한다.
따라서 두 마트 모두 광고함이 우월전략이고, 내쉬균형은 (E 광고함, H 광고함), 그 보수조합은 (10, 4)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6, 4)는 표의 E 광고 안 함·H 광고 안 함 칸이지만, 이 상태에서 E는 광고함으로 바꾸면 보수가 6에서 8로 증가하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는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10, 4)'로 고쳐야 한다.
② O — H가 광고할 때 E는 10과 3 중 10을, H가 광고하지 않을 때 E는 8과 6 중 8을 얻는 광고함을 선택하므로 E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이다.
③ O — E가 광고할 때 H는 4와 3 중 4를, E가 광고하지 않을 때 H는 8과 4 중 8을 얻는 광고함을 선택하므로 H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이다.
④ O — E와 H가 모두 광고함을 선택한 칸에서는 어느 한쪽도 혼자 전략을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없다. 따라서 (E 광고함, H 광고함)이 내쉬균형이다.
⑤ O — E와 H 모두 광고함이 우월전략이므로 각자가 우월전략을 선택하면 (E 광고함, H 광고함)에 도달하며, 이 조합이 내쉬균형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6, 4)는 두 마트가 모두 광고하지 않는 칸의 보수일 뿐이다. 특히 H의 보수가 내쉬균형에서도 4라는 점만 보고 (6, 4)를 균형 보수로 착각하기 쉽다. 내쉬균형은 보수의 크기나 특정 숫자 하나가 아니라 각자가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대방의 각 전략을 고정하고 자신의 보수만 비교하여 최적반응을 표시한다. 한 전략이 상대방의 모든 선택에서 더 높은 보수를 주면 우월전략이고, 두 사람의 최적반응이 동시에 성립하는 칸이 내쉬균형이다.

암기 포인트

상대 전략 고정 → 내 보수 비교 → 최적반응의 교차점이 내쉬균형이다.

NoteBase

문 97.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상소득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일시소득의 경우가 항상소득보다 작다.

② 생애주기이론에서는 같은 금액의 가처분소득을 가지더라도,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다른 소비성향을 보인다.

③ 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가처분소득에 주로 의존하며, 미래의 가처분소득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④ 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과 1사이의 값이며,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⑤ 항상소득이론은 사람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케인즈의 소비이론, 항상소득이론, 생애주기이론이 소비를 결정하는 소득과 시간 범위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케인즈 소비이론: 현재 소비는 주로 현재 가처분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지만 소득보다 작은 폭으로 늘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은 0과 1 사이이고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항상소득이론: 소비자는 일시적인 소득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비하며,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 대해서는 소비를 적게 조정한다.
생애주기이론: 소비자는 일생에 걸친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소비를 평탄화하므로, 현재 가처분소득이 같아도 나이와 생애 단계에 따라 소비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항상소득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소득 증가이므로 소비가 크게 반응하지만, 일시소득의 증가는 저축되는 부분이 커서 소비가 적게 반응한다. 따라서 일시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항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보다 작다.
② O. 생애주기이론에서는 남은 근로기간, 은퇴 시점, 보유자산 등 생애 단계가 소비 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현재 가처분소득이 같더라도 나이에 따라 소비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
③ O. 케인즈 소비이론은 현재 소비가 주로 현재 가처분소득에 의존한다고 본다. 미래소득을 중심으로 소비를 설명하는 이론은 생애주기이론이나 항상소득이론에 더 가깝다.
④ X. 틀린 표현은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한다'이다. 케인즈 소비이론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0과 1 사이이지만,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⑤ O. 항상소득이론에서는 소비자가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 소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장기적인 항상소득에 맞추어 소비하므로, 소비를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소비 평탄화가 나타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의 방향을 섞은 선지이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도 증가하므로 한계소비성향은 양수이지만, 소비가 소득보다 작은 폭으로 증가하므로 평균소비성향은 오히려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소득만 강조하면 케인즈 소비이론, 평생의 소득·자산과 나이를 강조하면 생애주기이론,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을 구분하면 항상소득이론으로 판단한다. 케인즈 소비함수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는 점을 별도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케인즈는 현재소득·평균소비성향 감소, 생애주기는 평생소득·나이, 항상소득은 항상소득 중심·일시소득에 작은 반응이다.

NoteBase

문 98. 다음 표에 근거한 실업 관련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2024년
취업자 수	1,000명	1,000명
비경제활동인구	2,000명	2,100명
생산가능인구	4,000명	4,000명
총인구	6,000명	6,200명

① 2024년의 고용률은 2023년보다 낮다.

② 2024년의 실업률은 2023년보다 낮다.

③ 2024년의 실업률은 50%이다.

④ 고용률은 총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⑤ 2024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보다 높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인구를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고용률·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를 정확히 적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 수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값이다.
2023년: 실업자 수는 4,000명-1,000명-2,000명=1,000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1,000명+1,000명=2,000명이다.
2024년: 실업자 수는 4,000명-1,000명-2,100명=900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1,000명+900명=1,900명이다.
총인구는 고용률·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가 아니다.

사용할 공식

실업자 수=생산가능인구-취업자 수-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므로, 먼저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를 구한 뒤 각 지표의 분모에 대입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고용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frac{1,000}{4,000} \times 100 = 25\%$이다.
실업률은 2023년에 $\frac{1,000}{2,000} \times 100 = 50\%$, 2024년에 $\frac{900}{1,900} \times 100 \approx 47.4\%$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에 $\frac{2,000}{4,000} \times 100 = 50\%$, 2024년에 $\frac{1,900}{4,000} \times 100 = 47.5\%$이다.

선지 판단

① X — 두 해의 취업자 수와 생산가능인구가 각각 1,000명과 4,000명으로 같으므로 고용률은 모두 25%이다. 틀린 표현 '2024년의 고용률은 2023년보다 낮다'는 '2024년의 고용률은 2023년과 같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실업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약 47.4%로 낮아진다.
③ X — 2024년 실업률은 실업자 900명을 경제활동인구 1,900명으로 나눈 약 47.4%이다. 틀린 표현 '50%이다'는 '약 47.4%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고용률은 총인구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틀린 표현 '총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 고쳐야 한다.
⑤ X —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 50%에서 2024년 47.5%로 낮아진다. 틀린 표현 '2023년보다 높다'는 '2023년보다 낮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실업률의 분모를 생산가능인구나 총인구로 잡는 것이다.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취업자 수가 그대로여도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가 함께 줄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빼 실업자를 구하고,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해 경제활동인구를 구한다. 그다음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삼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고용률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이다.

NoteBase

문 99. 특정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3%, 명목이자율이 5%이고, 이자소득세율이 10%일 때, 실질이자율과 세후명목이자율은?

① 2%, 2%

② 2%, 4.5%

③ 3%, 7%

④ 4.5%, 1.8%

⑤ 5%, 5.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실질이자율을 구하고, 명목이자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세후명목이자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물가상승률 3%, 명목이자율 5%, 이자소득세율 10%
구해야 할 값: 실질이자율과 세후명목이자율
주의할 조건: 이자소득세는 명목이자소득에 부과되므로 명목이자율 5%에 세후 비율 90%를 곱한다.

사용할 공식

실질이자율의 근사식은 $r \approx i - \pi$이다.
세후명목이자율은 $i(1 - t)$이다.
여기서 r은 실질이자율, i는 명목이자율, π는 물가상승률, t는 이자소득세율이다. 물가상승으로 줄어든 구매력을 명목수익에서 차감하고, 세후 명목수익은 명목이자의 세후 잔존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실질이자율은 $5\% - 3\% = 2\%$이다.
2. 세후 명목이자율은 $5\% \times (1 - 0.10) = 4.5\%$이다.
3. 따라서 두 값은 차례대로 2%, 4.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첫 번째 값 2%는 맞지만 두 번째 값 2%가 틀렸다. 세후명목이자율은 물가상승률을 빼는 값이 아니라 5% × 0.9 = 4.5%이다. 따라서 '2%, 2%'는 '2%, 4.5%'로 고쳐야 한다.
② O — 실질이자율은 2%이고 세후명목이자율은 4.5%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X — '3%, 7%'는 두 값이 모두 틀렸다. 실질이자율은 5%에서 3%를 뺀 2%이고, 세후명목이자율은 세금을 더하는 7%가 아니라 5%에 90%를 곱한 4.5%이다. 따라서 '3%, 7%'는 '2%, 4.5%'로 고쳐야 한다.
④ X — '4.5%, 1.8%'는 두 값의 의미와 계산이 틀렸다. 4.5%는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세후명목이자율이며, 1.8%는 요구된 두 값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4.5%, 1.8%'는 '2%, 4.5%'로 고쳐야 한다.
⑤ X — '5%, 5.5%'는 두 값이 모두 틀렸다. 5%는 세전 명목이자율일 뿐 실질이자율이 아니며, 10%의 세금은 수익률을 높이지 않으므로 세후명목이자율은 5.5%가 아니라 4.5%이다. 따라서 '5%, 5.5%'는 '2%, 4.5%'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실질이자율과 세후명목이자율은 서로 다른 조정을 거친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지만, 세후명목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 1-세율을 곱한다. ①처럼 두 계산을 모두 뺄셈으로 처리하거나 ⑤처럼 세율을 더하는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요구된 값이 '실질'인지 '세후 명목'인지 구분한다. 실질이자율은 $i - \pi$, 세후명목이자율은 $i(1 - t)$로 각각 계산한 뒤 선지의 값과 순서대로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실질은 물가를 빼고, 세후 명목은 세후 비율을 곱한다: $r \approx i - \pi$, $i_{\text{after-tax}} = i(1 - t)$.

NoteBase

문 100.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학공장의 100억 원의 부가가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10억 원인 경우, 국내총생산은 100억 원 증가로 표시된다.

② 우리나라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액이다.

③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디지털도어록이 많이 생산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증가한다.

④ 기존 주택의 거래,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 주부의 가사노동,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제외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이 현재 국내 생산을 어떤 범위까지 시장가치로 측정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이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시장 임대료에 준하는 귀속임대료를 추계하여 포함한다. 또한 생산에 수반된 환경오염이나 범죄 증가 같은 사회적 손실을 직접 차감하는 복지지표는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화학공장이 생산한 100억 원의 부가가치는 GDP에 포함되지만, 대기오염 피해 10억 원은 시장에서 평가된 생산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는다. 따라서 GDP에는 100억 원 증가로 표시된다.

② O
GDP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일정 기간, 통상 1년 동안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③ O
절도 증가에 대응하여 새로 생산된 디지털도어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재이므로 그 생산액이 GDP에 포함된다. 범죄로 사회적 후생이 낮아지더라도 GDP 자체는 증가할 수 있다.

④ O
기존 주택과 중고자동차는 과거에 생산될 때 이미 GDP에 반영되었으므로 그 물건의 재판매 가액은 현재 GDP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거래 과정에서 새로 제공된 중개서비스의 가치는 포함될 수 있다.

⑤ X
틀린 표현은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제외된다'이다. 주부의 무급 가사노동은 시장거래가 아니어서 GDP에서 제외되지만,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귀속임대료를 추계하여 GDP에 포함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시장에서 실제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가주택 서비스까지 무급 가사노동과 동일하게 제외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국민계정은 임차주택과 자가주택을 일관되게 다루기 위해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를 귀속임대료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재·서비스의 시장가치인지 먼저 확인한다. 중고품 자체와 무급 가사노동은 제외하고, 새 중개서비스와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는 포함한다. 환경오염이나 범죄 같은 후생 손실은 GDP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무급 가사노동은 제외, 자가주택 귀속임대료는 포함이다.

NoteBase

문 101.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②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주 은행을 찾게 되는데, 이를 구두창비용이라 한다.

③ 인플레이션 조세란 통화발행을 통해 정부가 수입을 얻는 것이다.

④ 피셔(I. Fisher)가설이 성립한다면, 채권자가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금, 외환에 대한 투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비용, 인플레이션 조세, 피셔가설 및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등 생산비가 상승하여 총공급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에서는 현금 보유의 실질가치 하락을 피하려는 행동 때문에 구두창비용이 발생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명목계약의 실질가치를 바꾸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하고 실물자산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를 높여 총공급을 감소시키므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틀린 표현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며, 올바르게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다.
② O — 예상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은행을 더 자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불편 등의 비용을 구두창비용이라고 한다.
③ O —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면 민간이 보유한 화폐의 실질가치가 물가상승으로 감소하고 정부는 통화발행수입을 얻는다. 이러한 실질 구매력의 이전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한다.
④ O — 피셔가설이 성립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율 상승만큼 명목이자율이 상승하여 사전적 실질이자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예상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채권자의 실질수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⑤ O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화폐와 명목자산의 실질가치를 불확실하게 하므로 가치 보존 수단인 부동산·금·외환에 대한 투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을 물가상승이라는 결과만 보고 수요견인으로 오인하기 쉽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가 아니라 생산비 상승이므로 비용인상 요인이다. 또한 ④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피셔가설 아래의 예상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물가상승의 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소비·투자·정부지출 등 총수요 증가이면 수요견인, 원자재 가격·임금 등 생산비 상승이면 비용인상으로 판단한다.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예상 여부를 구분하여,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구두창비용과 명목이자율 조정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와 불확실성 증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 증가 → 수요견인, 생산비 증가 → 비용인상, 예상 인플레이션 → 구두창비용·피셔효과, 예상 밖 인플레이션 → 부의 재분배·투기 증가이다.

NoteBase

문 102. 다음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20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이다.)

	2021년	2022년
명목GDP	1,050	1,210
실질GDP	1,000	1,100

① 2022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0%이다.

②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10이다.

③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비해 5% 올랐다.

④ 2021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5이다.

⑤ 202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10%보다 높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명목GDP와 실질GDP로 GDP디플레이터를 구하고, 수준의 변화와 증가율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21년 명목GDP는 1,050, 실질GDP는 1,000이다.
2022년 명목GDP는 1,210, 실질GDP는 1,100이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사용할 공식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100
경제성장률=당해 연도 GDP-전년도 GDP전년도 GDP×100
명목GDP와 실질GDP의 비율은 기준연도 대비 물가수준을 나타내므로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한다. 연도 간 변화율은 전년도 값을 분모로 하는 두 번째 공식으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2021년 GDP디플레이터는 $\frac{1,050}{1,000} \times 100 = 105$이다.
2. 2022년 GDP디플레이터는 $\frac{1,210}{1,100} \times 100 = 110$이다.
3. 2022년 실질경제성장률은 $\frac{1,100 - 1,000}{1,000} \times 100 = 10\%$이다.
4. 2022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frac{110 - 105}{105} \times 100 \approx 4.76\%$이다.
5. 2022년 명목경제성장률은 $\frac{1,210 - 1,050}{1,050} \times 100 \approx 15.24\%$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실질GDP가 1,000에서 1,100으로 증가했으므로 2022년 실질경제성장률은 10%이다.
② O. 2022년 GDP디플레이터는 $\frac{1,210}{1,100} \times 100 = 110$이다.
③ X. '2021년에 비해 5% 올랐다'가 틀린 표현이다. GDP디플레이터의 수준은 105에서 110으로 5포인트 올랐지만, 상승률은 $\frac{5}{105} \times 100 \approx 4.76\%$이다. 올바르게는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비해 약 4.76% 올랐다'이다.
④ O. 2021년 GDP디플레이터는 $\frac{1,050}{1,000} \times 100 = 105$이다.
⑤ O. 2022년 명목경제성장률은 약 15.24%이므로 10%보다 높다.

오답 포인트

③은 GDP디플레이터가 105에서 110으로 5포인트 상승한 것을 5% 상승으로 바꾸어 표현한 선지이다. 지수의 차이와 지수의 증가율은 다르며, 증가율을 구할 때는 차이 5를 전년도 값 105로 나누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연도의 GDP디플레이터를 구한 뒤, '몇 포인트 변했는가'는 단순한 차이로, '몇 % 변했는가'는 그 차이를 전년도 값으로 나눈 비율로 판단한다. 경제성장률도 명목과 실질 중 어느 GDP를 사용하는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실질GDP×100이다. 105에서 110은 5포인트 상승이지만 약 4.76% 상승이다.

NoteBase

문 103. 우리나라의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동일 기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보일 수 있다.

② 소비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 수는 생산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수보다 적다.

③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에 100이다.

④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가 주로 소비하는 상품군의 가격변화를 나타낸다.

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중치는 동일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의 측정 대상과 가중치 설정 방식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구입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소비지출 비중으로 가중하여 측정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출하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 전체의 가격 수준을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로 나타낸다.
세 지수는 측정 대상과 가중치가 다르므로 같은 기간에도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조사 대상, 거래 단계, 품목별 가중치가 다르므로 같은 기간에도 서로 다른 값을 보일 수 있다.
② O.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의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의 출하 품목을 더 넓게 포괄하므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측정 대상 품목 수가 더 적다.
③ O. 각 물가지수는 가격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기준년의 지수 수준을 100으로 놓는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년에 100이 된다.
④ O.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 가계가 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다. 선지의 '상품군'은 이러한 소비용 재화와 서비스의 묶음을 뜻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모든 상품의 가중치는 동일하다'이다. 올바르게는 각 품목이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여러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모든 품목을 단순평균한다는 뜻으로 바꾼 선지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해도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이 총지수에 더 큰 영향을 준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물가지수 선지에서는 먼저 측정 대상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가중치 기준을 확인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 소비지출 비중,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의 국내 출하액 비중,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최종생산물의 당해 생산구성을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산 바구니이며, 모든 품목을 똑같이 보지 않고 소비지출 비중만큼 가중한다.

NoteBase

문 104.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증가시킨 화폐량과 예금창조를 통해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②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③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④ 기업이 일용직 급여를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금창조 금액은 더 많아진다.

⑤ 본원통화 1억 원을 증가시킬 때, 통화승수가 4라면 통화량은 4억 원 증가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통화승수의 뜻과 지급준비율·현금보유 성향·요구불예금 이자율이 예금창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화승수는 본원통화가 예금창조 과정을 거쳐 통화량을 몇 배로 늘리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통화량 증가분을 본원통화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금이 많거나 은행이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추가 대출과 예금창조가 줄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의 증가분과 예금창조를 거쳐 나타난 통화량 증가분 사이의 배수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화량 증가분을 본원통화 증가분으로 나눈 비율이다.

② O
요구불예금 이자율이 낮아지면 예금 보유의 매력이 떨어져 사람들이 예금보다 현금을 더 보유하려는 경향이 커진다. 현금 누출이 늘면 은행의 예금창조가 줄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③ O
법정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예금 중 더 많은 금액을 준비금으로 남겨야 하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한다. 따라서 예금창조가 줄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④ X
틀린 표현은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금창조 금액은 더 많아진다'이다. 실제로는 현금 지급으로 은행 밖의 현금 보유가 늘어나 예금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예금창조 금액은 더 적어진다.

⑤ O
통화승수가 4라는 것은 본원통화 증가분의 4배만큼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원통화가 1억 원 증가하면 통화량은 4억 원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현금 지급'을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는 현상으로만 보면 예금창조가 늘어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금창조의 관점에서는 현금이 은행 예금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금 누출'이므로 창조되는 예금의 총액이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은행이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이 줄어드는 요인은 통화승수를 낮춘다. 지급준비율 상승과 현금보유 성향 상승은 예금창조를 줄이고, 본원통화 증가분에 통화승수를 곱하면 통화량 증가분이 된다.

암기 포인트

준비금과 현금 누출이 커지면 예금창조와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NoteBase

문 105. 폐쇄경제하에서 총공급곡선(AS)의 기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일 경우, 총수요의 변화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나 생산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수직인 총공급곡선은 고전파의 이분법을 만족시킨다.

③ 단기에 있어 모든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④ 단기에 실제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⑤ 케인즈는 노동시장에서의 명목임금 경직성 때문에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수평·우상향일 때 총수요 변화가 물가와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직 총공급곡선: 물가가 변해도 산출량은 완전고용 산출량에 고정되는 장기·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이다.
수평 총공급곡선: 주어진 물가에서 수요 증가에 맞추어 산출량을 늘릴 수 있는 가격 고정 상황의 총공급곡선이다.
우상향 단기 총공급곡선: 기대물가가 주어진 상태에서 실제물가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관계이다. 대표식은 $Y = \bar{Y} + \alpha(P - P^e), \alpha > 0$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총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총수요가 변해도 산출량은 완전고용 수준에서 변하지 않고 물가만 변한다.
② O. 수직 총공급곡선에서는 명목변수인 물가의 변화가 실질변수인 산출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고전파의 이분법과 부합한다.
③ O. 단기에 모든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가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이 조정되므로 총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④ X. 틀린 표현은 '총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이다. 실제물가가 기대물가보다 높아질수록 단기 산출량이 증가하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올바르게는 '실제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단기에는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이다.
⑤ O. 명목임금이 경직되어 있을 때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기업의 노동수요·고용·생산이 늘어나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실제물가와 기대물가의 불일치'를 곡선의 음(-)의 기울기와 연결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대물가가 주어졌을 때 실제물가와 산출량의 관계는 양(+)이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공급곡선의 모양별 조정변수를 확인한다. 수직이면 총수요 변화가 물가만 바꾸고, 수평이면 산출량만 바꾸며, 우상향이면 물가와 산출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암기 포인트

장기·고전파는 수직, 가격 고정은 수평, 기대물가와 실제물가의 차이가 작동하는 단기는 우상향이다.

NoteBase

문 106.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플레밍 모형을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국내와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고정이고, IS곡선은 우상향하고 LM곡선은 수직선을 가정한다.)

① 변동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② 고정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③ 변동환율제하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 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자국화폐는 평가절하되지만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④ 고정환율제하에서 순수출이 감소할 경우, 일정하게 주어진 환율에 대하여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⑤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환율은 변하지 않지만 소득은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완전한 자본이동 아래에서 환율제도에 따라 재정정책·통화정책·순수출 변화가 환율과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한 자본이동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에 맞추어진다.
변동환율제: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지 않으므로 환율이 조정된다. 주어진 통화공급과 물가수준에서 수직인 LM곡선이 소득을 결정하므로 재정정책이나 순수출 충격은 환율 변화로 상쇄되고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고정환율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유지하므로 통화공급이 내생적으로 조정된다. 재정정책은 소득을 변화시키지만 독자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상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확장적 재정정책은 변동환율제에서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을 일으키지만, 그에 따른 순수출 감소가 재정지출 증가를 상쇄하므로 균형소득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소득이 감소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이다.
② X — 고정환율제에서는 자국화폐가 실제로 평가절상되도록 두지 않는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생긴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외화를 매입하고 통화공급을 늘리므로 소득이 증가한다. 올바르게는 '환율은 고정되고 소득은 증가한다'이다.
③ O — 수입이 수출보다 커져 순수출이 감소하면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자국화폐의 평가절하가 순수출을 다시 늘려 이 충격을 상쇄하며, 수직인 LM곡선이 정한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④ X — 고정환율제에서 순수출 감소로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평가절하 압력이 생긴다.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화를 매도하고 자국통화를 회수하므로 통화공급이 감소하고 LM곡선도 왼쪽으로 이동하여 소득이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이며, 올바르게는 '소득은 감소한다'이다.
⑤ X — 고정환율제에서 통화공급 증가는 평가절하 압력을 만든다.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 과정에서 처음의 통화공급 증가가 상쇄되므로 환율뿐 아니라 균형소득도 변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소득은 증가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평가절상과 ③의 평가절하는 모두 맞는 방향이지만, 변동환율제에서는 그 환율 조정이 IS 충격을 상쇄하므로 소득까지 함께 변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반대로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통화공급이 조정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제도를 확인한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움직여 IS 충격을 상쇄하고, 수직 LM이 소득을 고정한다'고 판단한다.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공급 조정'까지 추적하여 재정정책은 유효하고 통화정책은 무효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자본이동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는 변동환율제는 통화정책, 고정환율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NoteBase

문 107. 폐쇄경제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D-AS 곡선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개별적인 수요-공급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ㄴ.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AD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ㄷ. 정부지출이 감소할 경우, AD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ㄹ. 투자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AD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총수요곡선의 도출 방식과 통화공급·정부지출 변화에 따른 이동 방향,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수요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총산출량을 연결한 곡선이다. 개별 재화의 수요곡선을 단순히 수직 합산한 곡선이 아니다.
통화공급 증가는 실질화폐잔고를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와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정부지출 감소는 총수요를 줄이므로 AD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실질화폐잔고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와 산출량이 감소하므로 AD곡선은 우하향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 않지만 ㄴ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ㄴ을 옳지 않은 설명에 포함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ㄱ과 ㄹ을 골라야 한다.

② O
ㄱ과 ㄹ이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ㄱ의 수직 합산 설명은 총수요·총공급곡선의 도출 방식이 아니며, ㄹ과 달리 투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음수인 통상적인 경우 AD곡선은 우하향한다.

③ X
ㄴ과 ㄷ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ㄴ, ㄷ을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올바르게는 통화공급 증가 시 AD곡선은 우측으로, 정부지출 감소 시 AD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④ X
ㄹ은 옳지 않지만 ㄴ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ㄴ을 옳지 않은 설명에 포함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ㄴ을 제외하고 ㄱ을 포함하여 ㄱ, ㄹ로 구성해야 한다.

⑤ X
ㄱ과 ㄹ은 옳지 않지만 ㄴ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ㄴ을 추가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ㄴ을 제외한 ㄱ, ㄹ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미시경제학의 시장수요곡선 도출 방식인 개별 수요의 수평 합산과 거시경제학의 AD곡선 도출을 혼동하기 쉽다. ㄹ에서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음수'라는 정상적인 관계를 AD곡선의 우상향 근거로 잘못 연결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변수의 변화와 물가수준 자체의 변화를 구분한다. 통화공급 증가와 정부지출 증가는 AD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통화공급 감소와 정부지출 감소는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한편 물가수준 상승은 실질화폐잔고 감소, 이자율 상승, 투자 감소, 산출량 감소로 이어지므로 AD곡선의 기울기는 우하향한다.

암기 포인트

AD는 개별 수요의 합산이 아니라 재화·화폐시장의 동시균형에서 도출된다. 통화량 증가면 AD 우측, 정부지출 감소면 AD 좌측, 물가 상승이면 산출량 감소이다.

NoteBase

문 108. 아래 폐쇄경제 완전고용을 고려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Y = K^{0.5}L^{0.5}$이고, 자본(K)과 노동(L)의 공급량은 각각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 초기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증가시키는 경우, 균형이자율 변화(차이)의 절댓값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이다.)

○ $C = 10 + 0.8(Y - T)$
○ $I = 8 - 2r$
○ $G = 50$
○ $T = 50$

① 3
② 4
③ 5
④ 6
⑤ 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고정된 폐쇄경제에서 정부지출 증가가 재화시장 균형이자율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Y = K^{0.5}L^{0.5}$이고 $K = L = 100$이므로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Y = 100$이다.
조세가 $T = 50$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비는 $C = 10 + 0.8(100 - 50) = 50$이다.
정부지출은 50에서 60으로 증가하며, 구해야 할 값은 균형이자율 변화의 절댓값이다.

사용할 공식

폐쇄경제의 재화시장 균형식은 $Y = C + I + G$이다.
완전고용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Y가 100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정부지출 증가로 생긴 총수요 증가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로 상쇄되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초기 균형은 $100 = 50 + (8 - 2r) + 50$이므로 $r = 4$이다.
정부지출이 10 증가한 뒤에는 $100 = 50 + (8 - 2r) + 60$이므로 $r = 9$이다.
따라서 균형이자율 변화의 절댓값은 $|9 - 4| = 5$이다.
같은 결과를 변화분으로 구하면 $0 = \Delta I + \Delta G = -2\Delta r + 10$이므로 $\Delta r = 5$이다.

선지 판단

① X — 3은 계산 결과인 5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값은 $|\Delta r| = 5$이다.
② X — 4는 초기 균형이자율이지 이자율 변화의 절댓값이 아니다. 올바른 변화량은 $|9 - 4| = 5$이다.
③ O — 정부지출 증가분 10을 상쇄하려면 투자가 10 감소해야 하고, $\Delta I = -2\Delta r$이므로 $|\Delta r| = 5$이다.
④ X — 6은 재화시장 균형식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올바른 값은 $|\Delta r| = 5$이다.
⑤ X — 8은 투자함수의 절편이지 이자율 변화가 아니다. 올바른 값은 $|\Delta r| = 5$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4는 초기 균형이자율이고 ⑤의 8은 투자함수의 절편이다. 문제는 새로운 이자율 자체가 아니라 전후 이자율 차이의 절댓값을 묻고 있으므로 $r_0 = 4$, $r_1 = 9$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고용 산출량이 고정된 모형에서는 먼저 생산함수로 Y를 구한 뒤 $Y = C + I + G$에 대입한다. 정책 전후의 균형이자율을 각각 구하고, 마지막에 문제에서 요구한 변화량 또는 그 절댓값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고용에서 Y가 고정되면 정부지출 증가는 같은 크기의 투자 감소로 상쇄된다. $\Delta I = -2\Delta r$이므로 정부지출이 10 증가할 때 이자율은 5 상승한다.

NoteBase

문 109. 아래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현 수준의 중앙은행 명목통화량(M)이 100일 때,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 P는 물가수준이고, 초기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 $C = 20 + 0.8(Y - T)$
◯ $I = 10 - 2r$
◯ $G = 50$
◯ $T = 50$
◯ $\frac{M}{P} = Y - 10r$
◯ $P = 1$

① 50, 3
② 100, 4
③ 150, 5
④ 200, 6
⑤ 250, 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화시장 균형식에서 IS곡선을, 화폐시장 균형식에서 LM곡선을 구한 뒤 두 식을 연립하여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M = 100$, $P = 1$, $G = 50$, $T = 50$이다.
구해야 할 값: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으로 만드는 Y와 r이다.
주의할 조건: 실질통화량은 $M/P = 100/1 = 100$이고, 소비함수에는 가처분소득 $Y - T$를 대입한다.

사용할 공식

재화시장 균형식은 $Y = C + I + G$이고, 화폐시장 균형식은 주어진 실질화폐수요식 $M/P = Y - 10r$이다.
폐쇄경제에서 생산된 소득은 소비·투자·정부지출의 합과 같아야 하므로 재화시장 균형식을 사용하며, IS-LM의 동시균형은 두 시장의 균형식을 함께 만족해야 하므로 두 식을 연립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재화시장 균형식을 정리한다.

$Y = 20 + 0.8(Y - 50) + (10 - 2r) + 50$

$Y = 40 + 0.8Y - 2r$

$0.2Y = 40 - 2r$

$Y = 200 - 10r$

따라서 IS곡선은 $Y = 200 - 10r$이다.

2. 화폐시장 균형식을 정리한다.

$\frac{100}{1} = Y - 10r$

$Y = 100 + 10r$

따라서 LM곡선은 $Y = 100 + 10r$이다.

3. 두 식을 연립한다.

$200 - 10r = 100 + 10r$

$20r = 100$

$r = 5$

이를 LM식에 대입하면 $Y = 100 + 10 \times 5 = 150$이다.

선지 판단

① X — 제시된 $Y = 50$, $r = 3$은 IS식과 LM식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다. 틀린 값 50, 3 → 올바르게는 150, 5이다.

② X — 제시된 $Y = 100$, $r = 4$는 계산된 동시균형값과 다르다. 틀린 값 100, 4 → 올바르게는 150, 5이다.

③ O — $Y = 150$, $r = 5$를 대입하면 IS식과 LM식이 모두 성립한다.

④ X — 제시된 $Y = 200$, $r = 6$은 계산된 동시균형값과 다르다. 틀린 값 200, 6 → 올바르게는 150, 5이다.

⑤ X — 제시된 $Y = 250$, $r = 8$은 IS식과 LM식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다. 틀린 값 250, 8 → 올바르게는 150, 5이다.

오답 포인트

소비함수의 $Y - T$에서 조세 $T = 50$를 빼지 않거나, 명목통화량 M을 그대로 쓰면서 물가수준 P로 나누는 절차를 놓치기 쉽다. 또한 IS식만 또는 LM식만 만족하는 값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시장을 동시에 균형으로 만드는 교점을 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Y = C + I + G$로 IS식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M/P를 계산하여 LM식을 정리한 뒤, 두 식을 연립하여 r과 Y를 차례로 구한다. 마지막에는 구한 값을 두 식에 모두 대입해 검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IS-LM 동시균형은 ‘IS식 작성 → 실질통화량으로 LM식 작성 → 두 식의 교점 계산’이다.

NoteBase

문 110.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산출량이 자연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되면, 필립스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취한다.

② 단기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높이게 된다.

③ 단기적으로 기울기가 우하향할 경우, 합리적 기대가 성립한다 해도 이 경제에서 화폐의 중립성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④ 모두가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의 경우, 단기에 필립스 곡선은 항상 수직이다.

⑤ 새고전학파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따를 경우, 정부정책이 실행될 시 이를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필립스곡선이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대가 반영되는 방식에 따라 단기 필립스곡선의 이동과 장기 필립스곡선의 수직성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필립스곡선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역관계를 나타낸다.
장기에는 실제 물가상승률과 기대물가상승률이 일치하여 산출량과 실업률이 각각 자연산출량과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가므로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다.
합리적 기대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대를 형성한다는 뜻이지, 모든 정책이 언제나 정확히 예상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상된 정책과 예상하지 못한 정책의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장기균형에서 실제산출량이 자연산출량 수준에 머무르면 물가상승률이 달라져도 실질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② O
기대인플레이션이 주어진 단기 필립스곡선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면 물가상승률이 높아진다. 이는 단기 필립스곡선을 따라 이동하는 관계이다.

③ O
합리적 기대가 성립해도 예상하지 못한 통화정책은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의 차이를 만들어 단기에 산출량과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화폐의 중립성이 단기에도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틀린 표현은 '단기에 필립스곡선은 항상 수직이다'이다.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나 물가 변동은 단기에 실업률과 산출량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할 수 있다. 수직인 것은 기대가 조정된 장기 필립스곡선이며, 예상된 정책이 실물변수에 체계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과 단기곡선의 수직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⑤ O
새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 모형에서는 경제주체가 예상된 정부정책을 기대물가에 곧바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단기 필립스곡선이 즉시 이동하므로 예상된 정책으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아래에 지속적으로 낮출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④는 '합리적 기대'와 '완전한 예견'을 같은 뜻으로 보고, 예상된 정책의 무력성을 단기 필립스곡선의 항상 수직이라는 주장으로 바꾼 선지이다.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예측오차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한 뒤 정책이 예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장기에는 기대가 조정되어 필립스곡선이 수직이고, 단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물가 변동이 실업률과 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장기는 자연실업률에서 수직, 단기는 예상 밖의 물가 변동 때문에 우하향할 수 있다.

NoteBase

문 111. 아래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신고전파 투자모형 (neoclassical model of investment)하에서 기업가가 구입하고자 하는 적정 자본재(K)수준은? (단, 자본재 가격이 다른 상품가격과 함께 상승하고 물가수준은 1이라고 가정한다.)

◯ 자본재의 한계생산: $MP_K = 10 - 2K$
◯ 자본재의 가격: $P_K = 20$
◯ 실질이자율: $r = 5\%$
◯ 감가상각률: $\delta = 5\%$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신고전파 투자모형에서 자본의 한계생산과 자본의 실질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적정 자본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MP_K = 10 - 2K$, $P_K = 20$, $r = 0.05$, $\delta = 0.05$이다.
구해야 할 값: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량 K이다.
주의할 조건: 자본재 가격이 다른 상품가격과 같은 비율로 상승하므로 자본재의 상대가격에서 실질 자본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가수준이 1이므로 실질 사용자비용은 $P_K(r + \delta)$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MP_K = P_K(r + \delta)$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기업이 자본 한 단위를 추가할 때 얻는 한계생산과 그 자본을 보유하는 데 드는 실질 사용자비용이 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자본의 실질 사용자비용을 계산한다.

$P_K(r+\delta) = 20(0.05+0.05) = 2$

2. 한계생산을 사용자비용과 같게 둔다.

$10 - 2K = 2$

3. 적정 자본량을 구한다.

$2K = 8, \quad K = 4$

따라서 기업이 구입하고자 하는 적정 자본재 수준은 4이다.

선지 판단

① X — $K = 2$이면 $MP_K = 6$으로 사용자비용 2보다 크므로 자본을 더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틀린 값 2 → 올바른 값은 4이다.

② X — $K = 3$이면 $MP_K = 4$로 사용자비용 2보다 크므로 아직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틀린 값 3 → 올바른 값은 4이다.

③ O — $K = 4$이면 $MP_K = 2$로 사용자비용 2와 같아 이윤극대화 조건을 충족한다.

④ X — $K = 5$이면 $MP_K = 0$으로 사용자비용 2보다 작으므로 자본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틀린 값 5 → 올바른 값은 4이다.

⑤ X — $K = 6$이면 $MP_K = -2$로 사용자비용 2보다 작으므로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 틀린 값 6 → 올바른 값은 4이다.

오답 포인트

실질이자율 5%만 적용하여 감가상각률 5%를 빠뜨리면 사용자비용을 과소평가한다. 또한 자본재 가격이 전체 물가와 함께 상승한다는 조건에서는 명목 가격 상승을 별도의 실질 자본이득으로 빼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질 사용자비용 $P_K(r+\delta)$을 계산하고, 이를 MP_K와 같게 둔 뒤 K를 푼다. 후보 자본량에서 MP_K가 사용자비용보다 크면 자본을 늘리고, 작으면 자본을 줄인다.

암기 포인트

적정 자본량의 기준은 '자본의 한계생산 = 실질 사용자비용'이다.

NoteBase

문 112. 아래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intertemporal cho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비자는 두 기간 동안만 생존하고, 현재와 미래소비는 정상재이다.)

ㄱ. 현재소비는 현재 소득만이 아닌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ㄴ. 차용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는 평생 동안 번 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ㄷ. 제1기 또는 제2기의 소득이 증가하면, 제1기 및 제2기 소비를 모두 증가시킨다.
ㄹ.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발생하면 현재소비는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피셔의 2기간 소비선택에서 평생소득의 현재가치, 차용제약, 이자율 변화의 대체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생자원: 차용과 저축이 자유로우면 소비자는 현재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의 현재가치까지 합한 $W = Y_1 + \frac{Y_2}{1+r}$를 기준으로 두 기간의 소비를 선택한다.
차용제약: 미래소득을 담보로 빌릴 수 없고 제약이 실제로 구속되면 제1기 소비는 현재소득을 넘을 수 없으므로, 소득의 시점도 소비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자율의 대체효과: 이자율이 오르면 현재소비 한 단위를 줄여 얻는 미래소비가 늘어나므로 현재소비는 감소하고 미래소비는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ㄴ'은 옳지 않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ㄱ처럼 차용과 저축이 가능한 기본 모형에서는 현재소비가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합한 평생자원에 의존한다. ㄴ의 틀린 부분은 차용이 불가능해도 소비가 평생소득의 현재가치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② X
ㄹ은 옳지 않지만 ㄱ은 옳으므로 'ㄱ, ㄹ'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이자율 상승의 대체효과에 관한 ㄹ은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③ X
ㄴ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ㄴ, ㄷ'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면 제1기 또는 제2기 소득의 증가는 평생자원을 늘려 두 기간의 소비를 모두 증가시킨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④ O
ㄴ과 ㄹ이 모두 옳지 않다. 차용제약이 구속되면 현재소비는 현재소득의 제약을 받아 평생소득의 현재가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이자율 상승의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키고 미래소비를 증가시킨다.
⑤ X
ㄴ과 ㄹ은 옳지 않지만 ㄱ은 옳으므로 'ㄱ, ㄴ, ㄹ'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ㄱ을 제외한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차용제약이 없을 때의 '평생소득 현재가치' 원리를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ㄹ에서는 이자율 상승으로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놓치면 대체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차용제약의 유무와 구속 여부를 확인한다. 제약이 없으면 두 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합치고, 제약이 구속되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도 확인한다. 이자율의 대체효과는 '현재소비 감소, 미래소비 증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무제약이면 평생자원, 차용제약이면 소득 시점, 금리 상승의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미래소비↑이다.

NoteBase

문 113.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노동시장 근로(labor)와 가구생산(household production)에 쓸 수 있도록 각자에게 10시간씩 주어졌다. 각각의 활동에 10시간을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가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소득(노동)-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였을 때,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로축은 가구생산액(L), 세로축은 근로소득액(Y)이고, 한계대체율($MRS = \left|\frac{\Delta Y}{\Delta L}\right|$)은 체감한다.)

	가구생산	근로
남편	10만원	20만원
아내	25만원	15만원

① 만약 두 사람 모두 가구생산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1시간의 노동시장 근로를 해야 한다면, 남편이 한다.

② 이 가구가 근로를 통해 21만원을 벌어야 한다면, 가구의 근로시간은 남편 7시간과 아내 4시간이다.

③ 남편의 비교우위는 가구생산에 있다.

④ 두 사람이 미혼일 경우와 비교하여 결혼 후에 가구의 기회집합이 확장되는 것은 전문화와 관련이 없다.

⑤ 이 가구의 예산선 기울기는 굴절되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간당 생산성과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부부의 비교우위, 전문화에 따른 가구의 생산가능경계, 근로소득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 배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각자에게 가구생산과 노동시장 근로에 배분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씩 주어진다.
10시간을 모두 투입했을 때 남편은 가구생산 10만원 또는 근로소득 20만원을, 아내는 가구생산 25만원 또는 근로소득 15만원을 생산한다.
따라서 시간당 생산성은 $L_H = 1$, $Y_H = 2$, $L_W = 2.5$, $Y_W = 1.5$이고, 각 값의 단위는 시간당 만원이다.

사용할 공식

근로소득 1만원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가구생산액의 감소분을 근로소득의 증가분으로 나누어 구한다.
OC_Y=포기한 가구생산액얻은 근로소득액
남편은 $OC_Y = 1/2$, 아내는 $OC_Y = 2.5/1.5 = 5/3$이다. 근로소득의 기회비용이 더 작은 사람이 노동시장 근로에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남편이 먼저 근로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모두 가구생산을 하면 가구생산액은 35만원, 근로소득액은 0원이므로 시작점은 $(L, Y) = (35, 0)$이다.
2. 남편이 10시간을 먼저 근로하면 가구생산액은 25만원, 근로소득액은 20만원이 되어 굴절점은 $(25, 20)$이다.
3. 이어 아내도 10시간을 모두 근로하면 가구생산액은 0원, 근로소득액은 35만원이므로 끝점은 $(0, 35)$이다.
4. 근로소득 21만원을 얻으려면 남편이 10시간 근로하여 20만원을 벌고, 아내가 $1/1.5 = 2/3$시간 근로하여 나머지 1만원을 번다.

선지 판단

① O. 두 사람 모두 가구생산을 하는 상태에서 근로를 시작할 때에는 근로소득 1만원당 포기하는 가구생산액이 더 작은 남편이 먼저 근로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남편 7시간과 아내 4시간'이다. 이 배분의 근로소득은 $7 \times 2 + 4 \times 1.5 = 20$만원으로 21만원에 미달한다. 올바르게는 남편이 10시간, 아내가 2/3시간 근로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남편의 비교우위는 가구생산에 있다'이다. 가구생산 1만원의 기회비용은 남편이 근로소득 2만원, 아내가 근로소득 0.6만원이므로 가구생산의 비교우위는 아내에게 있다. 올바르게는 남편의 비교우위가 노동시장 근로에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기회집합이 확장되는 것은 전문화와 관련이 없다'이다. 결혼 후 각자가 비교우위가 있는 활동에 더 전문화하고 생산물을 함께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기회집합이 확장된다. 올바르게는 기회집합의 확장이 전문화와 관련이 있다.

⑤ X. 틀린 표현은 '예산선 기울기는 굴절되지 않는다'이다. 남편이 근로하는 구간의 기울기 절댓값은 2, 아내가 근로하는 구간의 기울기 절댓값은 0.6으로 서로 다르다. 올바르게는 예산선이 $(L, Y) = (25, 20)$에서 굴절된다.

오답 포인트

절대적인 생산성만 비교하면 남편은 근로, 아내는 가구생산에서 더 많이 생산한다는 사실만 보고 끝내기 쉽다. 비교우위는 상대적 기회비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②는 제시된 시간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0만원에 불과하며, ⑤는 두 사람의 시간당 교환비율이 달라 예산선에 굴절점이 생긴다는 점을 놓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사람의 시간당 생산성을 구하고, 한 활동의 산출 1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하는 다른 활동의 산출을 비교한다. 기회비용이 작은 사람부터 해당 활동에 배분한 뒤, 전문화 담당자가 바뀌는 지점에서 생산가능경계의 기울기가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비교우위는 절대생산량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결정된다. 사람별 기회비용이 다르면 전문화 담당자가 바뀌는 지점에서 가구의 생산가능경계가 굴절된다.

NoteBase

문 114. A국가는 경제활동인구가 4,0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상태변화는 없으며,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과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4%와 16%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취업자 수는?

① 3,000만 명

② 3,100만 명

③ 3,200만 명

④ 3,300만 명

⑤ 3,600만 명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균제상태에서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이동하는 인원과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이동하는 인원이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 취업자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경제활동인구는 4,000만 명이며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실직률은 4%, 구직률은 16%이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이 없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취업자 수를 E, 실업자 수를 U, 실직률을 s, 구직률을 f라고 하면 균제상태 조건은
$sE = fU$
이다. 또한
E+U=4,000만 명
이다.
균제상태에서는 실업으로 유입되는 인원과 취업으로 유출되는 인원이 같아 실업자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균제상태 조건에 주어진 비율을 대입하면
$0.04E = 0.16U$
이므로 $E = 4U$이다.
이를 E+U=4,000만 명에 대입하면
4U+U=4,000만 명
이므로 U=800만 명, E=3,200만 명이다.
같은 결과를 취업자 비율 공식으로 구하면
$\frac{f}{s+f} = \frac{0.16}{0.04+0.16} = 0.8$
이므로 취업자 수는 4,000만 명의 80%인 3,200만 명이다.

선지 판단

① X — 취업자가 3,000만 명이면 실업자는 1,000만 명이다. 실직자는 120만 명이지만 취업자는 160만 명이 되어 두 이동량이 같지 않다. 틀린 값 3,000만 명은 3,200만 명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취업자가 3,100만 명이면 실업자는 900만 명이다. 실직자는 124만 명이고 취업자는 144만 명이므로 균제상태가 아니다. 틀린 값 3,100만 명은 3,200만 명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취업자가 3,200만 명이면 실업자는 800만 명이다. 취업자 중 실직자는 128만 명이고 실업자 중 취업자는 128만 명으로 같아 균제상태 조건을 충족한다.
④ X — 취업자가 3,300만 명이면 실업자는 700만 명이다. 실직자는 132만 명이고 취업자는 112만 명이므로 균제상태가 아니다. 틀린 값 3,300만 명은 3,200만 명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취업자가 3,600만 명이면 실업자는 400만 명이다. 실직자는 144만 명이고 취업자는 64만 명이므로 균제상태가 아니다. 틀린 값 3,600만 명은 3,200만 명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실직률 4%와 구직률 16%를 단순히 경제활동인구에 곱하면 안 된다. 실직률의 기준은 취업자이고 구직률의 기준은 실업자이므로 서로 다른 모집단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두 상태 사이에 이동이 없다는 조건 때문에 정상상태 취업자 계산의 분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두고, 균제상태에서 실직률×취업자=구직률×실업자를 세운다. 그다음 두 식을 함께 풀고, 양쪽 이동 인원이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균제상태에서는 실업으로 들어오는 흐름과 실업에서 나가는 흐름이 같다. 취업자 비율은
구직률실직률+구직률이다.

NoteBase

문 115.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의 한계생산은 $MP_L = -10L + 30$이다. 제품가격 10, 임금 100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의 고용량은? (단, L은 고용량이다.)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고용량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임금이 같아지는 조건으로 구한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노동의 한계생산은 $MP_L = -10L + 30$, 제품가격은 $P = 10$, 임금은 $w = 100$이다.
구해야 할 값: 이윤을 극대화하는 고용량 L이다.
주의할 조건: 완전경쟁기업은 제품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은 제품가격과 노동의 한계생산의 곱이다.

사용할 공식

$MRP_L = P \times MP_L = w$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하여 얻는 추가수입인 MRP_L과 추가비용인 임금 w이 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되므로 이 조건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을 구한다.
$MRP_L = 10(-10L + 30) = -100L + 300$
2. 한계수입생산과 임금을 같게 둔다.
$-100L + 300 = 100$
3. 식을 풀면 다음과 같다.
$-100L = -200, \qquad L = 2$
따라서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고용량은 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L=0$이면 $MRP_L=300$으로 임금 100보다 크므로 노동을 더 고용하면 이윤이 증가한다. '고용량은 0'이 아니라 '고용량은 2'가 옳다.
② X — $L=1$이면 $MRP_L=200$으로 임금 100보다 크므로 아직 고용을 늘려야 한다. '고용량은 1'이 아니라 '고용량은 2'가 옳다.
③ O — $L=2$이면 $MRP_L=100$으로 임금 100과 같아 이윤극대화 조건을 충족한다.
④ X — $L=3$이면 $MRP_L=0$으로 임금 100보다 작으므로 세 번째 노동자를 고용하면 이윤이 감소한다. '고용량은 3'이 아니라 '고용량은 2'가 옳다.
⑤ X — $L=4$이면 $MRP_L=-100$으로 임금 100보다 작으므로 이 고용량은 이윤극대화점이 아니다. '고용량은 4'가 아니라 '고용량은 2'가 옳다.

오답 포인트

노동의 한계생산 MP_L 자체를 임금과 같게 두는 것이 함정이다. 임금은 화폐 단위의 한계비용이므로 MP_L에 제품가격을 곱한 MRP_L과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기업의 노동 고용 문제에서는 먼저 $MRP_L=P\times MP_L$을 구한 뒤 $MRP_L=w$를 풀고, 그 고용량에서 양자가 실제로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 조건은 '노동 한 단위의 추가수입 $P\times MP_L$ = 임금 w'이다.

NoteBase

문 116.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고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할 때, 아래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ㄴ.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직종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근로자집단과 고객이 차별하는 근로자집단 간 직종분리를 야기한다.
ㄷ.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으로부터 차별당하는 근로자집단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ㄹ.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계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용주 차별·고객 차별·통계적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과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용주의 선호차별: 고용주가 특정 집단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비금전적 불쾌감을 느껴, 그 집단의 임금을 실제보다 더 비싸게 인식하는 차별이다. 생산성이 같다면 차별하는 기업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므로 완전경쟁에서 도태된다.
고객에 의한 선호차별: 고객이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받거나 그 근로자가 판매하는 재화를 사는 것을 꺼리는 차별이다. 기업은 고객 접촉이 많은 직종과 적은 직종에 근로자집단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
통계적 차별: 개인의 생산성을 완전히 알 수 없을 때 기업이 소속 집단의 평균적 특성을 개인의 생산성 판단에 사용하는 차별이다.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이 없어도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ㄴ과 ㄹ이 빠져 있다. 고객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면 그 집단의 근로자가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② X
ㄴ과 ㄹ은 옳지만 옳은 ㄱ이 빠져 있다. 생산성이 같은 근로자 가운데 특정 집단을 기피하는 기업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차별하지 않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누리므로 완전경쟁 과정에서 고용주의 선호차별은 사라진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③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ㄹ이 빠져 있다. 고객 차별은 차별받는 집단이 판매하는 재화의 수요를 감소시키며, 통계적 차별은 편견 없이도 집단 평균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④ O
ㄱ, ㄴ, ㄹ은 모두 옳다. 고용주의 선호차별은 경쟁에 따른 비용 불이익으로 소멸하고, 고객 차별은 고객 접촉 정도에 따른 직종분리를 낳으며, 통계적 차별은 불완전한 정보와 집단 평균의 사용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⑤ X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고객 차별은 차별받는 집단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며, 고용주의 선호차별은 완전경쟁에서 차별 기업의 비용 열위 때문에 사라진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차별의 주체를 바꾸어 결과를 혼동하게 하는 데 있다. 고용주 차별은 기업의 비용 경쟁과 연결되고, 고객 차별은 수요 감소와 고객 접촉 정도에 따른 직종분리로 이어진다. 또한 통계적 차별은 감정적 편견이 아니라 개인 정보의 부족과 집단 평균의 사용에서도 생길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차별의 주체와 작동 경로를 먼저 연결한다. 고용주가 차별하면 비용 열위와 경쟁에 의한 소멸, 고객이 차별하면 수요 감소와 직종분리, 정보가 부족해 집단 평균을 적용하면 통계적 차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용주 차별은 경쟁이 줄이고, 고객 차별은 수요를 줄여 직종을 나누며, 통계적 차별은 편견 없이도 생긴다.

NoteBase

문 117.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서 높은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감소시킨다.
ㄴ. 근로자의 비근로소득을 증가시킨다.
ㄷ. 근로자의 이직 확률을 낮춘다.
ㄹ. 우수한 근로자를 기업으로 끌어들인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효율성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경로와 임금소득·비근로소득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율성임금은 기업이 시장균형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높은 임금은 실직의 손실을 키워 근무태만을 억제하고, 이직을 줄이며, 능력이 우수한 구직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높은 임금이 비근로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을 옳지 않은 설명으로 고른 부분이 잘못이다. 높은 임금은 해고될 때 잃는 소득을 크게 하므로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줄일 수 있다. 올바르게는 ㄱ이 아니라 ㄴ을 옳지 않은 설명으로 골라야 한다.

② O
ㄴ만 옳지 않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높은 임금은 근로소득을 늘리는 것이지 비근로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③ X
ㄷ을 옳지 않은 설명으로 고른 부분이 잘못이다. 높은 임금은 직장을 그만둘 때 포기하는 이익을 키우고 근로자의 이직을 줄여 채용·훈련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올바르게는 ㄷ이 아니라 ㄴ을 골라야 한다.

④ X
ㄹ을 옳지 않은 설명으로 고른 부분이 잘못이다. 높은 임금은 더 많은 구직자와 우수한 구직자의 지원을 유도하여 기업의 인력 선발을 개선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ㄹ이 아니라 ㄴ을 골라야 한다.

⑤ X
ㄷ과 ㄹ을 모두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묶은 부분이 잘못이다. 이직 감소와 우수 인력 유인은 모두 효율성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대표적 경로이다. 올바르게는 ㄷ, ㄹ이 아니라 ㄴ만 골라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ㄴ의 '비근로소득'이 함정이다. 임금이 높아지면 소득이 증가한다는 인상만으로 판단하면 놓치기 쉽지만, 임금 자체는 근로소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높은 임금이 노력 유인, 이직 감소, 우수 인력 선발처럼 기업의 생산성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본다. 소득의 종류를 묻는 표현에서는 임금이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별도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효율성임금의 세 경로는 태만 감소, 이직 감소, 우수 인력 유인이다. 임금은 비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NoteBase

문 118. 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단, L은 근로시간, W는 시간당임금이다.)

◯ 노동공급곡선: $L_s = W + 10$ ◯ 노동수요곡선 : $L_d = -2W + 20$

① 1/4
② 1/3
③ 1/2
④ 1
⑤ 3/2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로시간당 급여세가 만드는 세금 쐐기로 고용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구한 뒤, 사중손실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노동공급은 $L_s = W + 10$, 노동수요는 $L_d = -2W + 20$이다.
기업에 근로시간당 1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기업이 부담하는 시간당 노동비용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보다 1만큼 크다.
구해야 할 값은 과세 전후 고용량의 감소분을 밑변으로 하는 사중손실이다.

사용할 공식

과세 전 균형은 $L_s = L_d$로 구한다.
과세 후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W라 하면 기업의 노동비용은 $W + 1$이므로 노동수요는 $L_d = -2(W + 1) + 20$이 된다.
사중손실은 세금 쐐기와 거래량 감소분이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DWL=(1)/(2)× 단위당 세금× 고용 감소분
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과세 전에는 $W + 10 = -2W + 20$이므로 $W = \frac{10}{3}$, $L_0 = \frac{40}{3}$이다.
2. 과세 후에는 $W + 10 = -2(W + 1) + 20$이므로 $3W = 8$, $W = \frac{8}{3}$, $L_1 = \frac{38}{3}$이다.
3. 고용 감소분은 $\Delta L = L_0 - L_1 = \frac{40}{3} - \frac{38}{3} = \frac{2}{3}$이다.
4. 따라서 $DWL = \frac{1}{2} \times 1 \times \frac{2}{3} = \frac{1}{3}$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frac{1}{4}$은 사중손실이 아니다. 세금 쐐기 1과 고용 감소분 $\frac{2}{3}$을 이용하면 올바른 값은 $\frac{1}{3}$이다.
② O — 계산한 사중손실 $\frac{1}{3}$과 일치한다.
③ X — $\frac{1}{2}$은 사중손실이 아니다. 사중손실 삼각형의 밑변은 고용 감소분 $\frac{2}{3}$이므로 올바른 값은 $\frac{1}{3}$이다.
④ X — 1은 단위당 급여세의 크기일 뿐 사중손실이 아니다. 올바른 사중손실은 $\frac{1}{3}$이다.
⑤ X — $\frac{3}{2}$은 사중손실이 아니다. 세금과 고용 감소분을 곱한 뒤 삼각형이므로 $\frac{1}{2}$을 곱해야 하며, 올바른 값은 $\frac{1}{3}$이다.

오답 포인트

세금 1을 기존 노동수요식의 W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 기업이 내는 임금과 근로자가 받는 임금 사이에 1의 쐐기가 생긴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중손실은 세수나 세금 자체가 아니라 과세로 사라진 거래의 잉여이므로 삼각형 넓이의 계수 $\frac{1}{2}$을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위세 문제에서는 먼저 구매자 가격과 판매자 수취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쐐기를 넣고 과세 후 거래량을 구한다. 그다음 $\frac{1}{2} \times$ 단위세 $\times$ 거래량 감소분으로 사중손실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단위세의 사중손실은 세금 쐐기와 거래량 감소분이 만드는 삼각형, 즉 $\frac{1}{2} \times t \times \Delta Q$이다.

NoteBase

문 119. 헤도닉 임금(hedonic wage)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부상확률, 세로축은 임금이고 근로자는 위험기피자로 가정한다.)

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의 등이윤곡선은 우상향한다.

② 이윤이 다른 A기업의 등이윤곡선이 2개 있을 때,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이윤의 크기가 크다.

③ 근로자의 무차별곡선 기울기는 약간 더 위험한 일로 바꾸려할 때 요구하는 유보가격과 같다.

④ 근로자와 기업의 매칭은 (부상확률, 임금) 조합에 따라 상호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⑤ 완전경쟁에서 기업이 제안하는 일자리의 (부상확률, 임금) 조합은 이윤이 0인 등이윤곡선상에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헤도닉 임금모형에서 부상확률과 임금의 조합이 기업의 이윤 및 위험기피 근로자의 효용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헤도닉 임금은 일자리의 위험 같은 비금전적 특성이 임금 차이에 반영되는 현상이다.
기업의 등이윤곡선: 같은 이윤을 주는 (부상확률, 임금) 조합이다. 안전성을 높여 부상확률을 낮추려면 비용이 들므로, 같은 이윤을 유지하려면 더 안전한 일자리일수록 임금을 낮춰야 한다. 따라서 부상확률을 가로축, 임금을 세로축에 두면 등이윤곡선은 우상향한다.
근로자의 무차별곡선: 같은 효용을 주는 (부상확률, 임금) 조합이다. 위험기피 근로자는 더 큰 부상확률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므로 무차별곡선도 우상향한다.
같은 부상확률에서 임금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윤은 작아진다. 따라서 위쪽 등이윤곡선일수록 이윤 수준이 낮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 같은 이윤을 유지할 때 부상확률이 낮아질수록 지급 가능한 임금이 낮아지므로 기업의 등이윤곡선은 우상향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이윤의 크기가 크다”이다. 같은 부상확률에서 위쪽 곡선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조합이므로 기업의 이윤이 더 작다. 올바르게는 위에 있는 등이윤곡선의 이윤이 아래에 있는 등이윤곡선의 이윤보다 작다.
③ O — 근로자의 무차별곡선 기울기는 부상확률이 조금 증가할 때 같은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임금 상승분, 즉 추가 위험을 받아들이기 위한 한계 유보가격을 나타낸다.
④ O —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합과 기업이 제시할 수 있는 조합이 일치할 때 고용 매칭이 이루어진다. 균형에서는 근로자의 무차별곡선과 기업의 등이윤곡선이 접하는 조합이 선택된다.
⑤ O — 완전경쟁과 자유로운 진입을 전제하면 초과이윤이 소멸한다. 따라서 균형에서 기업이 제안하는 (부상확률, 임금) 조합은 이윤이 0인 등이윤곡선 위에 놓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곡선이 위에 있다는 사실을 더 높은 이윤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세로축은 이윤이 아니라 임금이다. 부상확률이 같다면 높은 임금은 기업의 비용을 늘리므로 이윤을 낮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업의 등이윤곡선에서는 같은 부상확률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이윤이 내려간다는 관계를 먼저 적용한다. 따라서 위쪽 등이윤곡선일수록 낮은 이윤, 아래쪽 등이윤곡선일수록 높은 이윤으로 판단한다. 한 곡선 안에서는 위험이 커질수록 절약되는 안전비용을 임금으로 보상할 수 있으므로 우상향한다.

암기 포인트

위쪽 등이윤곡선은 높은 임금·낮은 이윤, 아래쪽 등이윤곡선은 낮은 임금·높은 이윤이다.

NoteBase

문 120. 학력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교육년수, 세로축은 임금이다.)

① 임금-학력 곡선은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②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로 교육에 대한 한계수익률을 알 수 있다.

③ 능력이 다른 사람은 상이한 임금-학력 곡선을 갖는다.

④ 동일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은 할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교육년수를 선택한다.

⑤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학력선택 모형에서 교육의 한계수익과 개인의 할인율이 최적 교육년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금-학력 곡선은 교육년수별로 얻을 수 있는 임금을 나타내며, 우상향하되 교육의 한계수익이 체감하므로 점차 완만해진다.
개인은 교육을 한 단위 더 받을 때의 한계수익률과 할인율을 비교하여 교육년수를 선택한다. 같은 능력이라도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 임금을 더 작게 평가하므로 교육을 적게 선택하고, 할인율이 낮으면 교육을 더 많이 선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교육은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 등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므로 임금-학력 곡선은 우상향한다.
② O.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교육년수를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로 얻는 임금, 즉 교육의 한계수익을 나타내므로 교육의 한계수익률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③ O. 능력이 높을수록 같은 교육년수에서 더 높은 생산성과 임금을 얻을 수 있으므로 능력이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임금-학력 곡선을 갖는다.
④ X. 틀린 표현은 '할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교육년수를 선택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능력이 같아 임금-학력 곡선이 같더라도 할인율이 다르면 선택하는 교육년수가 달라진다. 할인율이 높은 사람은 미래 임금을 더 크게 할인하여 교육을 적게 선택하고, 할인율이 낮은 사람은 교육을 더 많이 선택한다.
⑤ O. 교육년수가 늘수록 추가 교육이 가져오는 임금 증가분이 작아지는 한계수익 체감이 나타나므로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능력이 같으면 선택도 같다'고 혼동하게 만든다. 능력은 임금-학력 곡선을 결정하지만, 그 곡선 위에서 어느 교육년수를 선택하는지는 미래 수익을 평가하는 할인율에도 달려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능력 차이는 임금-학력 곡선의 위치와 형태에 영향을 주고, 할인율 차이는 같은 곡선에서도 선택하는 교육년수를 바꾼다고 구분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교육년수는 짧아지고, 할인율이 낮을수록 교육년수는 길어진다.

암기 포인트

능력은 임금-학력 곡선, 할인율은 곡선 위의 교육 선택을 좌우한다. 높은 할인율은 짧은 교육, 낮은 할인율은 긴 교육으로 연결된다.

NoteBase